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2024년 2월
석사학위 논문

#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개념도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영 헌

#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개념도 연구

A Concept Mapping Study on the Challenges of University Life Adjustment for Military Discharged Students

2024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영 헌

#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개념도 연구

지도교수 김 나 래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영 헌

김영헌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권해수 (인)

위 원 오지현 (인)

위 원 김나래 (인)

2023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문제 ····· 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8
제1절 군 복무 의무 ····· 8
1. 군 복무 의무 ····· 8
2. 군 복무 관련 연구 ····· 10

제2절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 13
1. 적응 및 대학생활적응 ····· 13
2.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 16

제3절 개념도 연구 ····· 19
1. 개념도 연구 ····· 19
2. 개념도 연구를 활용한 선행연구····· 21

제3장 연구 방법 ····· 24

제1절 연구 참여자 ····· 24

제2절 연구방법 ····· 27
1. 개념도 방법 ····· 27
2. 개념도 연구절차 ····· 28

제3절 측정 도구 ····· 32
1. 대학생활적응 척도 ····· 32

제4장 연구결과 ····· 33
제1절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내용 ····· 33
제2절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 차원과 군집 ····· 36
제3절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 공감도 · 47

제5장 논의 및 한계점····· 48
제1절 논의 ····· 48
제2절 한계점 ····· 53

참고문헌 ····· 55

부록 ····· 62

#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 25
<표 2> 대학생활적응 척도와 문항구성 ····· 32
<표 3>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에 대한 최종 진술문 ····· 33
<표 4> 차원별 스트레스 지수 및 설명량 $R^2$ ····· 36
<표 5> X축, Y축 양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및 좌표값 ····· 38
<표 6> 군집 및 공감평정도 ····· 42

# 그 림 목 차

<그림 1>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 (2차원) ····· 37
<그림 2>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개념도 ····· 40
<그림 3> Ward 방법에 따른 덴드로그램 결과····· 41

# ABSTRACT

## A Concept Mapping Study on the Challenges of University Life Adjustment for Military Discharged Students

YEONGHEON KIM
Advisor : Prof. Na-Rae Kim, Ph. 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is study, through a conceptual map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challenges of university life adjustment for military discharged students. For this study, the first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eight returning students after being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and 72 statements were extracted, In the second interview, eight study participants rated the degree of empathy for each statement and classified similar statements among them. Based on the final collected data, a conceptual diagram was created by conducting a multidimensional scale method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using SPSS 27.0.

First, looking at the two dimensions derived from difficulties in adapting to college life of returning students after military discharge, the one-dimensional content was named "relational and contextual dimension-achievement performance dimension," and the two-dimensional content was named "emotional dimension-recognition dimension." Next, five clusters derived from difficulties in adapting to college life of returning students after military discharge were "lack of close relationships," "the stress of academic vacuum," "unformed affiliated groups," "negative self-image," and "impatience with employment and career deci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deriving and understanding empirical data on college life adaptation for returning students in detail by conceptually

structuring the experiences of returning students' difficulties in adapting to college life after being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In addition,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aspects of return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s qualitative data, it wa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for follow-up studies that reveal the basis for practical performance in the college student group's counseling or educational field.

Keyword : Military Discharged Students, Challenges of University Life Adjustment, Concept Mapping Study.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진다(헌법 제 39조 1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 19세 시기에 병무청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되고,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현역판정으로 1~3급은 군대에 입대하여 육군/해병(*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후 학업이 중단되지 않고 졸업 시까지 입영을 연기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자신이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 일자, 자신이 가진 특기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택하여 입대할 수 있다(병무청, 2023). 군대에 입대한 남자들은 군유형 복무 기간에 따라 배치된 자대에서 배정된 보직에 맞게 군사 훈련을 받게 되며, 복무 기간 동안 자대에서 간부, 선임, 후임과 생활을 보내게 된다. 군인 중 일부는 군 생활 동안 처음 접하는 직무, 군대 내외의 대인관계 상황 등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불안, 분노,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얻을 수 있으며(유연웅, 2012), 군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및 신체 건강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설정훈, 2018). 반면, 군 생활의 긍정적인 관점으로는, 군 복무 중 자기 이해와 사회경험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성숙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행복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김옥희, 차주환, 2015). 또한, 군 생활 안에서 대인관계 갈등 속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업무 경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 다양한 역할을 체험하며 성장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김선영, 2016). 군 생활 도중 신체적, 정신적 부상, 적응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복무일수를 채우고 전역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군대로 인한 일시적 학업중단을 겪다가 모든 복무 의무를 마친 뒤, 그들 중 다수는 학생이기에 다시 대학에 복학을 한다(김선영, 2016). 선행연구들은 군 생활 중 심리상태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했던 군 전역 후 복학한 대학생의 심리 내적 경험에 집중하고자 한다.

한편, 국내 남학생의 휴학 사유로는 '병역의무 이행'이 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통계청, 2022). 이는 현역병 중 대다수 인원이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군 전역 후, 대학 학기 일정에 맞춰 복학하게 된다. 이에 복학생이란,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도 쉬다가 다시 복귀한 학생을 말한다(주휘정, 차성현, 2011). 군 복학생들의 적응 수준은 다양한데, 가령, 적응적인 군 복학생은 복학 후 동아리 가입, 스터디 모임을 하거나, 입대 전 알고 지내던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보람차게 지낸다. 또한, 자신의 외모나 옷,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등 군대 입대 하기 전과 다르게 성숙해진 모습을 보인다(매거진한경, 2013). 이는 소위 군 버프(buff)라고 불리는데, 군대의 경험이 개인을 더욱 성장시켜 적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노해림, 김희경, 박승희, 양지연, 이우재, 전지혜, 조민경, 심은정, 2015).

하지만, 모든 군 복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다시 적응적으로 수행하며 지내는 것은 아니다. 군 복학 후 돌아온 대학 생활에서 학업, 대인관계,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대신문, 2020). 실제 선행연구에서 학업, 진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복학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노해림 외, 2015). 먼저, 복학생들은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게 되어 복학한 후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이관형, 장용규, 안현미, 2000). 또한, 군대를 다녀오고 달라진 대인관계에서 자신과 같이 입학한 동기들이 없어 외롭거나, 모르는 후배들이 더 많아져서 노인 취급을 받거나 그들과 대화 주제가 맞지 않아 낄 수가 없다는 점 등을 호소한다. 더불어 이러한 복학생을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의 경우 복학생에 대한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정신 차리고 공부할 것 같다.’, ‘어린 후배보다 전공지식이 많을 것 같다.’, ‘취향이 달라 대화가 안 된다.’, ‘어린 신입생들만 보면 따라다닐 것 같다.’ 등이 해당이 된다(알바천국, 2013). 군 복학생은 종종 학교 사람들과 섞이기 어렵고, 자신은 관심 밖의 존재인 거 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등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동하, 2023). 이처럼 복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부담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학생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편견이 그들을 더욱 위축시켜 대학생활적응에 곤란함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대 전역 후 복학생의 적응과 관련한 어려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인간의 삶은 크고 작은 다양한 변화의 연속적인 과정이며, 그에 맞는 지속적인 적응이 필요하다(김종운, 김지현, 2013). 적응이란, 자신의 욕구나 행동을 환경의 요구에 순응하는 수동적 측면과 자기의 욕구나 행동을 충족하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

키는 능동적 측면을 아우르는 것이다(Lazarus, 1976, 이슬, 2021에서 재인용). 특히,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 속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대학이나 동료 학생에 대한 애착, 호감, 유대감이라 할 수 있다(김지현, 2012). 대학생활적응은 학업, 진로, 대인관계와 같은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경험을 포괄한다(이관형 외, 2000).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시도들이 있었다. 가령, 융통성 있게 반응하며 자아통제감을 지니고, 사회적 지지를 높게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대학생활을 적응적으로 하게 된다(황혜지, 2017). 또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 원만한 생활을 통한 정신적인 건강도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준다(김지현, 2012).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조보람, 이정민, 2019),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송진열, 2017). 더불어,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의 삶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학생활적응이 낮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박미정, 함영림, 오두남, 2012)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수록 대학생은 주관적 안녕감(이수진, 2011) 및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재상, 김상미, 2022). 반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면, 휴학, 퇴학, 제적, 전과 등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효은, 김기원, 2011). 이처럼 대학 생활에서 적응은 대학생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에게 있어 다시 돌아온 대학환경에서의 적응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현실은 다음과 같다. 교육통계분석자료집(2021)에 따르면, 2020학년도 5.2%의 남자 대학생은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탈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연구에서 많은 남학생이 복학 후 적응에 어려움을 느껴 대학을 떠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진성 2021).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군 전역 후 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기존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상이 외국에서 온 유학생(김정숙, 2021; 이채식, 2012; 주동범, 김향화, 2013), 일반 대학생과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을 위주로 진행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김선영, 2023; 박은선, 김광현, 2016; 이정민, 2019; 최은이, 2017). 반면, 군 전역 후 남자 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국방의 의무와 전역 후 대학 복학은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문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내 연구자들이 이러한 현상과 복학생의 내적 경험에 대한 연구가

보다 풍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군 전역 후 복학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 경험을 다루어보려고 한다.

비록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존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적 연구로는 군 복무 후 전역한 복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현미, 2017). 또한, 군 생활에서 경험한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오광수, 정경은, 2020). 군 전역 후 복학생의 학업, 진로 효능감과 심리적응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김동하, 심은송, 송영미, 2021). 이는 주로 진로와 대인관계, 개인 능력 등 특정 변인을 상정한 가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다수의 피험자를 모집한 설문 연구로 진행되었기에 군 복학 후 대학 생활의 생생한 경험을 연구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해당 주제에 대한 질적 연구도 진행된 바 있지만, 복학생 전체라기보다는 특정 전공의 복학생에 한해서 진행되었다(김동희, 이영숙, 2017; 남경아, 강경화, 문성미, 2018; 여형남, 2021). 즉, 의무병 경험 및 간호 실습에 관하여 간호학과에 한정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난 후 시간이 흐른 뒤 과거를 회상 인터뷰를 토대로 연구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종합할 때, 대학에 막 복학해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복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연구는 그동안 부재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 전역 후 복학하여 학교적응과 관련해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개념도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념도 연구방법을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념도(Concept Mapping)는 아이디어를 그림이나 지도로 표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이다(최윤정, 김지연, 이혜은, 2022). 개념도 연구란, 한 집단의 참여자들이 논의하는 주제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공유한 생각으로 개념의 틀을 개발하여 집단의 사고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구조적인 논의과정을 활용하는 방법이다(정종진, 2021). Trochim(1989)의 개념도 연구법은 집단의 논의를 구조화하고 경험적 자료를 끌어내며, 개념이나 문제영역을 다루는 질적 연구와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 위계적 군집분석(HCA: Hierarchical Cluster Aanlysis)과 같은 통계적 분석을 사용하여 개념적 조직화와 사고 간의 관계를 구조화한다.

개념도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자료 수집과 분석에 참여하기에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며,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정혜영, 장성숙 2017; Kane & Trochim, 2007). 효율적이고 합리적,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사전 자료나 이론체계가 부족한 분야, 범주의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유용하다. 또한, 개인의 특수적 현상에 독특한 경험과 인식을 밝힐 수 있다(정종진, 2021). 개념도 방법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보면, 직업상담사가 인식하는 작업 동맹(김모란, 안윤정, 2022), 전문상담교사의 소진 경험(박근영, 임은미, 2014), 청소년이 지각한 회복 탄력성 요인(정혜영 외, 2017), 여성의 자발적 경력변경 영향 요인(김나래 외, 2016) 등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통해 한 집단의 경험을 개념화하고, 영향을 준 요인의 영역을 나누어 범주화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깊이 있게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는 현재 군 전역 후 바로 복학하여 적응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이들의 경험은 보편적인 현상이면서도 남학생이라고 하는 특수한 측면으로 보이므로 개념도 연구가 적합하다. 또한, 군 복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개념도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개념도 연구방법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고 인터뷰를 진행한다. 둘째, 개념도를 통해 양적인 연구방법과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 경험에 대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즉,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서 어려움 요인이 어떤 차원과 내용, 군집의 형태로 분류되는지 알아본다. 각 항목과 군집의 위치를 개념도로 나타내며, 각 군집의 명명을 지정한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각 진술문에 대한 공감 수준의 평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힐 수 있다. 군 전역 후 복학생이 겪는 어려움, 도움받고자 하는 요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대학상담센터에서의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군 전역 후 복학생을 돕기 위해 어떠한 개입이 필요할지 그 방안을 구안할 수 있다. 가령, 군 전역 후 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특강 운영을 기획하는 데 근거로써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지도교수 면담에 활용될 수 있다. 지도교수가 군 전역 후 복학생과 면담 시에 어떠한 내용을 중점으로 면담을

운용하고 지원을 할지에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군 전역 복학생들을 위한 연구이므로, 관련 연구가 확장되는데 본 연구가 활발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 제2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군 전역 후 복학생이 지각하는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은 무엇인가?

2. 군 전역 후 복학생이 지각하는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은 어떠한 차원과 군집으로 구성되는가?

3. 군 전역 후 복학생이 지각하는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의 공감 평정도는 어떠한가?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제1절 군 복무 의무

### 1. 군 복무 의무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형성하고 있다. 군대의 형태는 주로 징병제와 모병제로 나뉘는데, 징병제는 강제, 의무를 통해 군대에 입대하고, 모병제는 자신의 의지로 입영하는 형태를 말한다(홍혜영, 강혜영, 2013). 대한민국의 남성은 헌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진다(헌법 제 39조 1항). 병역제도는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을 충원하는 한 나라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병역이란, 군인으로서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후신, 2022).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의 현실로 인해 자발적 선택이 아닌 징병제에 의한 의무 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다(강종수, 2013). 보통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병제로 군대에 의무로 입영하여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에 의하면, 만 19세에 병무청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현역판정으로 1~3급은 군대로 입대한다(이현주, 2013). 군 복무 형태는 육군/해병(*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로 각 복무일수는 다르다(김정연, 김성중, 2022).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훈련소에서 약 한 달 동안 신체, 심리검사, 제식, 사격, 정신교육, 화생방, 구급법 등 기초 군사 훈련을 받게 된다(병무청, 2023). 훈련소를 마치고 난 후 수료식을 진행하여 보직을 얻고, 자대에 배치받게 된다. 운전병, 조리병, 정비병, 행정병 등 자신이 이전에 학과 관련이나 자격증 특기를 발휘하는 특기병 또는 별다른 조건 없이 입대하는 일반병으로 나뉜다. 일반 병사는 훈련병,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순으로 계급이 나뉜다. 이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의 군율을 가지는 수직적 계급구조이다(최혜란, 박숙희, 2009). 계급 진급은 복무 일 기준으로 진행되나, 체력검정, 특기 시험을 통해 조기 진급을 하거나, 육군의 경우 진급 누락이 될 수 있다. 복무일수 동안 자대에서 선임, 후임, 간부들과 생활을 하게 된다(병무청, 2023). 군대에서 정신적, 신체적 이상으로 조기 전역하거나, 군법을 위반하여 군 일수가 늘어나

는 영창이 없는 이상 각 군 형태별로 정해진 일수가 지나면 전역을 하게 된다.

군 복무하는 병사들의 나이는 주로 20대 초반으로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에 걸친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속한다(김옥란, 김완일, 2014). 이 시기에는 군대에서 자아정체감의 확립, 능력, 역할 및 책임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유연웅, 2012). 병사들은 익숙한 가정과 주변 환경을 떠나 병역의무로 군 사회에 속하게 되어 군대라는 조직의 구성원이 된다(조순영, 2003). 군대는 개인보단 군 조직의 목표와 가치가 우선된다. 병사들은 24시간 같이 생활하며, 통제된 집단생활, 외부와 접촉이 단절된 환경에서 지내게 된다(김옥란, 김완일 2015). 군 조직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제한되며, 통제된 상황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게 된다(김정은, 2013). 군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은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 '대인관계', '개인적인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최은진, 박희현, 2012). 병사들은 군 생활적응이라는 과제와 후기 청소년기의 발달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송영숙, 김지연, 2021). 병사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고민하는 문제는 학교, 진로문제가 가장 높았으며, 개인 문제, 병영 생활 문제 순으로 밝혀졌다(정용철, 홍혜영, 2014). 이러한 군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 휴게실, 내무반 개선 등 환경적으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다(양웅비, 2007). 최근에는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통해 휴대전화를 하면서 군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이영철, 이은희, 2020). 또한, 병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을 고용하여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병사들의 적응에 도움을 주거나, 그들이 가진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구승신, 2013). 병역의무 이행으로 군인은 자기성찰, 조직적응력, 인내심, 협동정신, 문제해결능력, 애국심 등 민간에서 얻기 어려운 경험의 기회 등 이익을 얻기도 한다. 반면, 중요한 시기 인생 공백, 사회진출의 시기적 지연 및 경제적 손실, 취업준비, 경력단절, 학습기회의 상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퇴화 등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김용기, 2011). '제대군인'이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이재완, 김민환, 2022).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는 입영 전 적성과 전공을 고려하여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전역 후에는 진로 설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김승태, 박기홍, 2022). 이처럼 군인은 군대에서 여러 경험을 하고 전역을 한다.

## 2. 군 복무 관련 연구

군 복무와 관련하여 여러 선행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현재 복무하는 군인들의 어떤 요인이 군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보거나, 군 생활 전역 후 얻게 되는 관점에 관한 연구, 군 병사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척도 개발 등이 진행되었다.

먼저, 유연웅(2012)의 연구에서 현역 병사 262명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군 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군 보직, 건강상태, 스트레스 증상, 자아탄력성, 대인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과 보직에 따라 군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할수록,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가지면 군 생활에서 만족이 높아진다고 한다. 설정훈(2018)은 군대에서 병사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할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심리적으로 강인하고 주변 대인관계에서 지지를 얻게 되면, 군 병사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주원, 나동석(2013)의 연구에서는 군 복무하고 있는 22세~26세 후기 청소년 288명을 대상으로 군 복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군대 문화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이는 군 복무 스트레스가 적고 사회적 지지 자원이 많을수록 군대 문화적응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김옥란 외(2015)의 연구에서는 육군과 공군 부대 311명을 대상으로 군 생활적응을 알아보았다. 이는 군 병사들이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군 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군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최혜란 외(2009)의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육군 449명을 대상으로 군 생활적응의 영향에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군 생활적응에서 위험요인은 정신적 갈등을 발생시킨다고 하였고, 가장 큰 요인은 강박증이라고 한다.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 내적 통제능력과 군 구성원의 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군대 환경에서 보호요인이 완충작용을 하여 군 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명선, 정향인, 강희선(2009)의 연구에서는 232명의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는 군 병사의 군 스트레스가 높고 우울할수록 군대에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안현의, 손난희, 이문희, 서은경(2007)의 연구는 군 복무 부적응에 대한 실

태와 인권침해 경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현역 병사 940명과 현역 간부 141명을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와 군 복무 부적응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는 전체 병사 중 10.96%, 간부 중 28.3%가 신체화, 편집증 등 심리적 부적응을 보인다. 또한, 병사들은 인권침해경험이 있다고 하며, 입대 전 적응 수준이 군 복무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처럼 군대에서 군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중요하기에 선행연구에서는 군인들의 정신건강과 군 생활적응에 대한 요인을 알아보았다. 군 병사들은 복무하는 도중 군대 생활에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등 많은 혼란을 겪고, 그 안에서 가지는 어려움으로 인해 군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좋은 군 복무 환경과 계급의 상승, 자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간부, 동료 병사들의 긍정적 지지가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군대 경험은 제대 후에 영향을 미친다.

김옥란 외(2014)는 연구로 주로 사용되는 척도들의 한계가 있어 새로운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1차 예비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군 복무 병사 8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진행 후 100문항의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2차 예비연구에는 육, 해, 공군 병사 953명에게 설문하였고, 예비척도 45문항을 추출하였다. 3차 연구는 육, 해, 공군 병사 791명에게 설문을 하였고, 요인 분석을 한 결과, 6개의 하위요인과 32문항을 추출하였다. 각 하위요인은 ‘군 생활 가치’, ‘애인관계’, ‘심신건강’, ‘업무능력’, ‘선임관계’, ‘동료관계’로 구성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6개 하위요인이 유효하였고, 공인타당도와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을 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병사들의 군 생활적응은 군대에서 중요한 사항이며, 이는 앞서 이야기한 군 적응에 관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경향이 보인다. 군대 안에서 동료와 선임 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인과의 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 병사의 스트레스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군대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적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이에 적응은 인생의 모든 순간에 중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군 병사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도 진행되었다. 정경조, 유현실(2016)은 군 병사들이 제대 후 직업환경과 직업사회에 적응하도록 진로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델파이 분석을 통해 군 진로상담의 필요성, 정의, 목적, 기능, 과제, 상담 방법에 관하

여 진로상담 체제 모형을 만들었다. 김정연 외(2022)의 연구는 군 병사를 위한 심리, 정서 관련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는 인권 문제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증가하였으나, 2020년 이후 감소하였다. 프로그램은 육군 병사를 위주로 진행이 많이 되었으며, 다수의 집합 교육이거나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군 생활적응의 주제가 많았고, 다음으로 심리, 정서적 요인에 대해 이루어졌다.

군인의 적응과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은 군대의 전투력을 결정하므로, 군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또한 중요하다. 군인은 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데, 이는 제대 후 군인의 신분이 없어 다른 진로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휴학 후 군대에 입대한 학생은 다시 복학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입대 전 다른 사회에서 일하다 온 병사들은 전역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을 수 있기에 진로상담이 중요하다. 또한, 군 생활에서 적응은 중요한 사항이기에 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러한 도움들을 통해 병사들이 더 나은 군 생활을 하고 난 후 건강하게 전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역자들의 군 복무 경험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김옥희 외(2015) 연구에서는 군 전역자 1,019명을 대상으로 군 복무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군 복무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진로성숙수준이 높았고, 본인의 행복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하양숙(2014)의 연구는 군 전역자 317명을 대상으로 군 경험 후 성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군 생활 경험을 긍정적으로 보며, 군 생활에 대한 역경의 정도가 높고,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성장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군 생활에 만족할수록 더 많이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군 전역자들이 군 생활에서 좋은 경험을 하면 전역 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점을 알 수 있다. 군 경험이 나쁜 기억과 스트레스로 남을 수 있지만, 좋은 경험으로 인해 성장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제2절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 1. 적응 및 대학생활적응

적응은 자신의 욕구나 행동을 환경의 요구에 순응하는 수동적 측면과 자기의 욕구나 행동을 충족하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측면이라고 보았다(Lazarus, 1976, 이슬, 2021에서 재인용). 적응은 환경의 변화에 대해 개체의 구조나 기능을 변화시켜 현재 상태를 보전하는 것으로 외부자극과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정은이, 2002). 또한, 적응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받는 위기에 잘 대처하고 환경과 개인의 요구를 살피는 능력으로, 사회의 규범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박미정, 2018).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거나 조절되어 일상생활에서 얻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스스로 불안이나 좌절감 없이 만족을 느낀다(김수지, 2011). 그러나, 적응 중 개인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지면 좌절, 불만족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정은이, 박용한, 2009).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개인이 사회와 환경 안에서 갈등과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상태라고 할 수 있다(이용헌, 2015). 적응은 개인이 일정 조건 또는 환경에 맞춰 잘 어울리거나 알맞게 되는 것으로, 주변 환경 속 살아남기 위해 각 개인의 투쟁이라 할 수 있다(이성미. 2012). 적응은 환경에 대한 창조적이고 자발적 행동이며,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회의 규범, 가치, 질서에 합한 상태라 할 수 있다(현경림, 2019).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변화와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을 요구받게 된다(서란, 2014). 이에 적응은 다양한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대학생은 대학 생활에 대한 적응이 중요하다.

대학 생활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발달과정에서 성인으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업에 수행이 중요하다. 대학생들은 여러 과업 중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대면하게 되는 과제가 있으며, 그 안에서 변화에 대응하고 대처해야 한다.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대학 내외의 생활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부적응에 빠질 수 있다(정명기, 2010).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에 일어나는 학업, 대인관계, 사회활동에 적응하고,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전반적 애착, 유대감, 호감을 갖는 것을 말한다(이경희, 강경리, 2019; Baker & Siryk, 1984). 대학생활적응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Baker와 Siryk(1984)가 제안하는 대학생활적응으로 설명한다. 이는 대학생활적

응을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소속학교에서의 적응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이성미, 2012). 첫째, 학업적 적응은 학생들이 여러 학업적 요구를 얼마나 잘 수행하며 적응하는지 측정한다. 둘째, 사회적 적응은 공동체인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역할을 평가하는 차원이다. 셋째, 정서적 적응은 학생들이 대학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 및 불안을 반영한다. 넷째, 소속학교에서의 적응은 현재 다니는 대학에 대한 일반적 경험 및 만족도를 측정하는 차원이다(안지윤, 박해인, 김이경, 2019).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학생활적응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먼저, 황혜지(2017)의 연구는 대학생 262명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는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김지현(2012)에 따르면, 대학생의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는 대학생이 정신건강의 하위변인 중 강박증과 우울증을 겪게 되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 중 부모지지와 교수지지가 풍부할 때,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송진열(2017) 연구에서 대인관계 능력은 '처음 관계 맺기', '권리주장', '정서적지지', '대인갈등 다루기'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대인관계 능력은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하게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영(2014)의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신입생 202명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보았다. 이는 진로에 대한 정체감과 자신의 전공을 얼마나 만족하는지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상 외(202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수록 개인의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 자원이 많고,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대학생의 행복감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은 외(2011)의 연구는 자신의 목표에 대한 설정을 잘 하고 부모와 친구와의 관계가 좋으면,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중도탈락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학교적응이 어려우면 중도탈락의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대학교에 막 입학한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요인을 알아보는 연구가 있다. 먼저 김선영(2023)의 연구에서는 COVID-19 팬데믹을 겪고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는 전공을 1순위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전공 미정의 학생보다 더 높은 대학생활적응을 보였으며, 자퇴계획

이 없는 학생들은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대학소속감은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는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 적응을 돕기 위해 대학 1학년 교육체계와 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박은선 외(2016)의 연구에서는 신입생 1,445명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요인과 대학생활적응 요인이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학업중단요인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고, 전공의 취업전망도, 대학만족도가 떨어질수록 대학생활적응 요인에서 대인관계가 적고, 학업활동이 높을수록 편입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학업중단요인에서 대학만족도가 낮으면, 휴학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한다. 학업중단요인에서 진로 부합도, 전공의 적성, 전공의 취업전망도, 대학만족도가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요인에서 사회체험 수준이 낮을수록 자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정민(2019)의 연구에서는 신입생 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회복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이(2017)의 연구에서는 신입생 26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에서 가장 높은 영역은 대학에 대한 애착이었고, 낮은 영역은 학업적 적응이었다. 남학생들은 학업적 영역, 신체적 적응 영역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여학생들은 대학에 대한 애착, 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이 남학생보다 높았다고 한다.

다음으로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채식(2012)의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인관계, 언어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이 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지각된 차별, 두려움, 적대감이 낮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주동범 외(2013)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118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는 유학생의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수준이 낮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으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정숙(2021)의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정서확장구축이론을 토대로 가설을 세워 진행하였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긍정정서 경험을 많이 할수록 긍정사고를 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대인관계,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 2.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복학생이란,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도에 쉬다가 다시 복귀한 학생을 말한다(주휘정 외, 2011). 군 복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복학한 남학생은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학업에 대한 동기도 높아지는 경험을 한다(김동하, 2021). 이는 군 버프(buff)라고 불리며, 고양된 학구열과 진지한 학습 태도를 가지며, 높은 학업 성취로 이어진다고 한다(노해림 외, 2015). 또한, 군대의 경험이 개인을 더욱 성장하게 하고, 자신감을 주어 대학 생활에 적응하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군 복학생들은 이러한 노력에도 학업, 진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노해림 외, 2015; 이관형 외, 2000). 군 복학생은 성적 하락을 경험하여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홍수현, 2002). 또한, 기존 친구의 부재로 인한 관계 상실과 대학교 후배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워 소외감을 느낀다(김동하, 2023). 이에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은 대학 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2학년 때 군 제대 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중도탈락하게 된다(김진성, 2021).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먼저, 복학생에 관한 양적 연구가 있다. 김현미(2017)의 연구는 군 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 미래계획, 직업정보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적태도, 자신감, 분노조절 요인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오광수 외(2020)의 연구에서 군 생활에서 경험한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는 군 생활 스트레스는 전역 이후 복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자기결정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대인관계 요인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군 생활 스트레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는 더 나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김동하 외(2021)의 연구에서는 군 전역 후 복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학업 및 진로효능감, 심리적응력, 사회적 지지 변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복학생의 학업, 진로효능감, 심리적응력 중 자아탄력성, 군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변인이 모두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한다. 이는 학업, 진로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군 생활 스트레스가 낮으면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중에서 학업적 효능감, 군 생활 스트레스, 교수지지가 제일 큰 요인이었고, 다음으로 부모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복학생들은 군대에서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복학한 후에도 군대에서 문제였던 진로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복학하여 다시 수행해야 하는 학업에 관한 고민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연구는 연구자의 가설로 일부 변인을 포함하여 군 전역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살펴보았기에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군 복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 한다.

군 전역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질적 자료 분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주로 간호대생이라는 특수 전공생을 대상으로 면담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령, 김동희 외(2017)의 연구에서는 군 복무 후 복학한 남자 간호대학생 11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여성 위주 환경과 변화된 인간관계로 소외감', '간호학 수행에 대한 자신감 상실'과 같은 2개의 주제에서 '복학 초기 위축됨'이 나타났다. '남자 간호대학생에 대한 무관심한 학교 체제에 실망함', '간호학과 내 보상받지 못함', '간호학과 선택에 대한 회의감'과 같이 3개의 주제로 '믿음이 무너짐'의 범주가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학과 내 지지체계를 활용', '내적 성숙함을 발휘', '부정적 감정을 승화'로 나타난 3개의 주제로 '적응 전략을 모색'이라는 범주가 도출되었다. 남경아 외(2018)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현역복무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군 전역 복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귀납적 질적 내용분석방법의 분석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최종 주제로 '새롭게 시작하기', '난관에 부딪힘', '제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하기', '전문직 정체감 혼란'이 도출되었다. 여형남(2021)의 연구에서는 간호학과를 다니고 군 복무 후 복학한 남학생 10명에게 심층 면담 후, Giorgi의 분석을 활용하였다.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군 복무 후 학과 적응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학과생활 어려움', '적응을 위한 노력', '학습 동기 증가', '미래 진로 성찰'로 나타났다.

군대 전역 후 복학한 간호학과 남학생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학과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그에 더욱 동기 부여가 되어 학업에 열중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서로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일부는 다른 전공에 속하는 군 전역 복학생의 경험도 설명해 줄 수 있으나, 간호 실습이나 학과 체제, 여초학과라는 간호학 전공생들의 특수한 경험을 좀 더 반영하는 결과를 보여주어 아쉬운 점이 있다.

선행연구 중 군대 전역 복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한 연구도 있었다. 이경희 외(2019)의 연구에서는 군 전역 복학생 19명을 대상으로 6회기의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는 Baker와 Siryk의 대학생활적응의 구성요소인 개인, 정서, 학업, 사회적응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정서적응, 사회적응, 학업적응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또한, 군 전역 복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이 되었다. 최근 김동하(2023)의 연구에서는 Seligman과 Rashid의 긍정심리를 바탕으로 군 전역 후 복학생 4명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에서 사전, 사후 비교하여 사회적 적응이 큰 효과를 보였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후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효인 중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졌다.

이처럼 군 전역 복학생의 적응은 중요한 이슈이므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 중 대다수 남학생이 군 전역 복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군 전역 복학생의 실질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은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용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 제3절 개념도 연구

## 1. 개념도 연구

개념도(Concept Map)는 아이디어를 그림이나 지도로 표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이다(최윤정 외, 2022). 개념도는 관계자 집단이 모여 계획 및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공통 개념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집단의 아이디어를 조직화하는 구조화 방법론으로 간주한다(최윤정 외, 2022). 초기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평가할 때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서 내담자의 경험을 그대로 파악하는 현상학적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에 활용된다(민경화, 최윤정, 2007). 개념도 연구는 Trochim (1989)이 제안한 연구방법으로, 개념도를 창출하기 위해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한 개념도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들을 일련의 절차라고 한다(민경화 외, 2007). 이는 한 집단의 참여자들이 논의하는 주제에 직접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개념의 틀을 개발하여 집단의 사고와 합의를 이끌기에 구조화된 논의과정을 활용한다(정종진, 2021). 개념도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과 경험내용이 연구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과 위계적 군집분석(HCA: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가지는 장점을 혼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Kane & Trochim, 2007). 이는 연구 대상에 대한 경험적이고 현상학적인 접근을 하면서도 분석절차가 구조화되고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는 점에서 질적 분석 접근법과는 다른 강점을 가진다(송수진, 2016). 개념도 연구의 유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편견보다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기 유용하다. 둘째,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사전 자료나 이론체계가 부족한 새로운 분야에 접근할 수 있다. 넷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과 특수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에 밝힐 수 있다. 다섯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 및 척도 개발의 문항 수집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위계적 군집분석, 다차원 척도법과 같은 통계법을 적용하여 연구자의 아이디어에 양적 근거를 제시하고, 결과를 다방면적으로 제시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정종진, 2021).

분석 방법은 ‘유사성 행렬 만들기’, ‘다차원 척도법’, ‘위계적 군집분석’으로 진행된다. ‘유사성 행렬’은 각 참여자에게 나온 진술문의 결과만큼 행과 열을 가진 정사각형 모양의 표 또는 행렬에 배치한다. 각 참여자의 분류 행렬이 구성된 후 전체를 합산하여 집단 유사성 행렬이 형성된다. 최종 유사성 행렬은 모든 참여자가 진술문들을 어떻게 분류하였는지 보여준다. 행렬의 값은 진술문이 개념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유사함을 의미한다. ‘다차원 척도법’은 몇 개의 차원에서 원래 문항들 사이의 거리를 유사성 또는 비 유사성 행렬로 나타내는 일반적인 기법이다. 개념도는 일반적으로 2차원 해법을 사용한다. 다차원 분석은 진술문에 대해 두 개의 좌표를 만들며, 이는 포인트 지도를 그리는 것에 사용된다. ‘위계적 군집분석’은 유사한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포인트 지도상의 개별 진술문을 통합 군집으로 묶는다. 다양한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이 존재하는데, 주로 Ward의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이는 특별한 거리 기반 자료에 적합하여 개념도에서 적합하다고 본다. 군집분석에서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마지막에 모든 진술문이 단일한 군집에 있을 때까지 두 개의 군집을 결합한다(최윤정 외, 2022).

개념도 연구에서 진술문은 분류와 평정을 거친 후 여러 결과 지도로 나타나게 된다. 먼저, ‘포인트 지도’는 2차원의 다차원 척도법의 도표로, 서로 연관이 있는 진술문을 보여주며, 관계형 지도에 해당한다. 이는 참여자들이 진술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근접한 진술문들 집단에 대해 범주를 정의하는 것을 시작하기 위한 토론의 도구로 사용된다. ‘포인트 군집 지도’는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를 다차원 척도 포인트 지도에 덮어씌워 나타낸다. 이 지도는 각 군집을 관련성 있는 진술문들과 연결시키고, 참여자들에게 군집에 대한 적절한 명칭을 제안할 때 유용하다. ‘군집 지도’는 군집분석의 명명된 결과를 보여주고 아이디어 영역에 큰 그림 개요를 제공한다. ‘포인트 지도’, ‘군집 지도’, ‘포인트 군집 지도’는 연구를 위해 산출되고 개념적 구조를 구성한다. ‘포인트 평정 지도’는 포인트 지도에 각 진술문에 대해 평균 평정 우선순위의 그래프 표현을 겹친 것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각 진술문 평균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낸다(최윤정 외, 2022).

이러한 개념도 연구의 특징과 관련 통계 및 지도에 대한 설명을 알아보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연구를 활용하였다.

## 2. 개념도 연구를 활용한 선행연구

개념도 방법은 상담심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어왔다.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모란 외(2022)는 직업상담사 27명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사가 경험하는 작업동맹의 요인 간 중요도와 경험일치도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차원으로 '작업동맹의 소통, 성찰 요인', '작업동맹의 관계, 행동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신뢰, 소통', '라포형성, 자기개방', '자기객관화, 현실직시', '목표설정, 과제이행'으로 4개의 군집을 발견하였다. 박근영 외(2014)의 연구에서는 Wee클래스와 Wee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소진 요인을 알고자 하였다. 이는 '한 명의 상담교사가 많은 수의 학생을 담당할 때', '상담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관리자를 만날 때', '업무와 역할의 모호성',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고로 인해 소진을 경험한다고 한다. 정혜영 외(2017)의 연구에서는 1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각한 회복 탄력성의 요인별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관점, 행동요인', '개인내적, 관계적영역'의 2개 차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사고', '대인관계능력', '자기조절력', '지지 자원'이라는 4개의 범주가 나타났다. 김나래와 이기학(2016)의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경력변경을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내면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탐색하였다. 경력변경 경험에 '기존 직업특성, 개인 효능감'이라는 영역과 '내적 진로가치, 환경적 맥락'의 위치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었다. 군집으로는 변화에의 기대, 조직 불만족, 자아실현 지향, 지지적 환경, 의미부여 어려움, 보상 미충족으로 범주화되었다. 각 진술문에 대해 공감도를 내어 '자아실현 지향' 군집이 가장 높은 평정치를 보여주었고, 경력변경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반면, 보상에 대한 미충족 군집이 가장 낮은 공감 평정도를 보였다. 이처럼 직업상담사의 상담 시 작업동맹, 전문상담교사의 소진,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여성의 경력변경 등은 심층적 면담으로 연구 참여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된 탐색으로 풍성한 연구적 발견이 가능한 주제이다. 본 연구인 군 전역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주제 또한 개념도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개념도 연구도 존재한다. 이는 대체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 요림림(2015)의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을 주제로 하였다. 이는 75개의 진술문을 통해 '개인, 사회차원', '문화, 학업차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수행

과 평가에 대한 어려움',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 '문화차이로 인한 심리적, 현실적 어려움',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6개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가장 주된 군집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었다. 이성미(2012)의 연구는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부적응 요인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였다. 이는 제주지역 대학을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주관적, 객관적' 차원과 '환경적, 개인적' 차원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업 상 어려움', '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문화 차이로 인한 대인관계와 식생활 어려움', '대학 시설, 운영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군집을 나누었다. 그중 '경제적 어려움'이 대학 생활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군집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유학생의 경험은 단순한 양적자료 수집이 아닌 질적이며 양적인 개념도 연구를 통해서 더 깊은 탐색이 가능했다. 하지만, 군 전역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개념도 연구는 그동안 부재했다.

다만, 군인 병사들을 위한 개념도 연구가 이뤄진 바 있는데, 이종형, 정신영, 송경재(2012)의 연구는 군대에서 언어폭력 가해 병사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가해자들의 언어폭력 동기를 이해하고,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언어폭력 가해 동기는 '외적 동기 및 내적 동기', '역할 갈등 및 역할 수용'의 2차원으로 나타났다. 총 5개의 군집으로 '후임병 관리책임에 대한 부담감', '습관적 사용', '위계질서 유지 목적', '후임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 '순간적 분노 표출'로 확인되었다. 이에 군대 내 언어폭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정신영, 이동귀, 박현주(2012)의 연구는 군대 입대 후 자살시도를 경험한 병사 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자살시도자들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이해하고 핵심적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위험요인으로는 '외부적 영향 및 내무적 요인', '관계 및 통제된 환경'의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군집으로는 '선임병 및 간부의 무시', '인격모독에 의한 자존감 저하', '통제된 군대 생활에 대한 괴로움', '통제 상황을 벗어나려는 노력의 좌절로 인한 고통',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로 나타났다. 보호요인으로는 '능동성 및 수동성', '쌍방향성 및 일방향성'의 2차원으로 구성되었다. 군집으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이해 받는 경험', '한번 해보자는 자기암시', '사회적 지지를 통한 격려'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념도 연구를 통해 군 병사들의 심리내적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상담심리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개념도 연구를

군 전역 복학생에게 적용하여 그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마련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개념도 연구방법으로 각 대상의 경험에 초점질문을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각 경험에 대해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확인하였고, 진술문에 대한 군집, 차원, 공감도 및 중요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개념도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와 절차를 통해 진행하였다.

# 제3장 연구방법

## 제1절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도 연구이다. 개념도 연구방법에서 연구 참여자 수는 크게 제한은 없긴 하나, 최소 8명에서 최대 40명 이하가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종진, 2021; Kane & Trochim, 2007). 이에 본 연구는 전역 후 복학생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아이디어 산출하기 단계에서 진술문 생성을 위해 면담 진행과 진술문 구조화하기 단계에서 진술문들을 분류하고, 평정도를 나타내는 과정에 총 두 번 참여하였다. 이는 연구의 자료가 더욱 세밀하고 풍부하기 위해 두 과정을 모두 진행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선발한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특히, 군 전역 후 복학생 중 본 연구 주제인 군 전역 후에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를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Baker와 Siryk(1984)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이윤정(1999)이 번안한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활용하였다. 오명현(2021)을 토대로 할 때,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평균 3.49 이하로 나온 대상자는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대학생활적응 척도로 설문조사를 하여 점수가 3.49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둘째, 군 복무 의무를 사회복무의무와 군 면제, 상근을 제외하고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와 같은 현역복무를 한 자로 삼았다. 또한, 간부가 아닌 병사로 복무한 만기 전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셋째,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면담을 하기 위해 군 휴학을 하고, 2022년 9월~23년 2월 중 전역하여 2023년 1학기에 바로 복학한 남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넷째,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군 휴학 전과 복학 후 같은 학과를 다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편입 및 전과생은 배제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각 대학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모집 문

건을 안내하여 연구 대상을 모집하였다. 스크리닝 차원에서 대학생활적응 척도 점수 기준을 확인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나이, 학년, 학과, 군 복무 형태, 전역 일자, 복학 시기에 대한 질문을 넣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웹 설문지를 통해 URL 공유 방식으로 배포하였으며, 응답 후 바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 일정을 합의하여 만난 후 모집 문건의 연구 목적 및 설명을 읽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 번호 | 나이(만) | 학번 | 전공 | 입대 일자 | 전역 일자 | 보직 | 복학 시기 | 대학생활 적응 척도 |
|---|---|---|---|---|---|---|---|---|
| 1 | 22 | 20 | 경영 학부 | 2021.02.15 | 2022.08.15 | 육군/ 전투 요원 | 2023-1 | 3.40 |
| 2 | 22 | 19 | 의생명과학과 | 2021.08.17 | 2023.08.14 | 육군/ GOP 초병 | 2023-1 | 2.28 |
| 3 | 22 | 20 | 역사문화학과 | 2021.07.27 | 2023.01.26 | 육군/ 조교 | 2023-1 | 3.40 |
| 4 | 26 | 16 | 상담심리학과 | 2021.02.15 | 2022.08.14 | 해군/ 통신병 | 2023-1 | 3.48 |
| 5 | 21 | 20 | 토목공학과 | 2021.03.16 | 2022.09.15 | 육군/ 소총수 | 2023-1 | 3.44 |
| 6 | 22 | 20 | 물리치료학과 | 2021.04.26 | 2022.10.07 | 육군/ K-3 사수 | 2023-1 | 3.24 |
| 7 | 21 | 20 | 첨단에너지공학과 | 2021.06.08 | 2022.12.07 | 육군/ 유탄 발사기사수 | 2023-1 | 3.96 |
| 8 | 22 | 21 | 상담심리학과 | 2021.07.29 | 2022.10.28 | 육군/ 저격병 | 2023-1 | 3.36 |

연구 참여자의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참여자의 번호는 임의로 부여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만 나이 평균은 22.25세이며, 표준편차는 1.58세이다. 연구

참여자의 학번은 16학번부터 21학번까지이다. 연구 참여자의 학부 전공은 경영학부, 의생명과학과, 역사문화학과, 상담심리학과, 토목공학과, 물리치료학과, 첨단에너지공학과로 다양한 전공을 하고 있다. 입대 시기는 연구 참여자 전부 2021년도 입대하였으며, 전역 시기는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1월에 만기 전역하였다. 보직은 육군 7명, 해군 1명으로 보직으로 근무하였다. 복학 시기는 본 연구의 기준에 맞게 2023년 3월에 복학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 척도 점수는 평균 3.32이고 표준편차는 0.47점이다. 연구자 모두 자격에 충족하였다(척도 기준 3.49 이하). 단, 7번 참여자는 선정 기준에서 대학생활척도 점수가 3.96점으로 기준보다 높았는데, 개인 면담을 진행했을 때, 척도에서 응답하지 못하였던 어려움을 호소하여 참여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가령 '다른 사람들에게 섣불리 다가기 어려웠다.', '나를 제외한 이미 뭉쳐 있는 집단에 내가 적응하는 것은 부담이다.', '입대 전 공부에 소홀히 했던 것을 다시 복구하는데 많은 노력이 든다.' 라고 복학 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4번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데, 이는 휴학을 하고 난 후 늦게 군대에 입대한 경험으로 다소 특수하지만, 복학 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가령 '군대 복학 후 어려웠던 점은 자신감 하락이다.', '군대에서 전공 공부를 하지 않아 공백기가 있다.', '전역 후 공부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 라고 전역 후 복학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제2절 연구방법

### 1. 개념도 방법

개념도 연구방법은 일대일 면담을 통해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기보고(self-reporting) 방식으로 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수집할 수 있다(정종진, 2021). 그 후 연구 참여자들 수집된 자료를 구조화된 카드를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생각과 경험을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카드분류 결과를 다차원 척도법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하며, 총 세 가지 기본과정을 거친다(Trochim, 1989). 이를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한 참여자가 경험한 인식 내용과 구조를 개념도라는 최종 결과물로 제시한다(심주원, 2016). 개념도 방법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는 현상의 영역과 구성요소, 특히 잠재 구조를 밝히는 점이 유용하다. 이는 구조화된 개념화 과정의 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현상의 이면에 대한 구조를 탐색하고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산출, 종합, 편집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분류하여 특정 현상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개념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요림림, 2015). 최근 국내에서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내담자의 경험을 그대로 파악하는 현상학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민경화 외, 2007).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특수하지만,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들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처럼 양적 방법에 근거해 연구자가 설정한 군 생활 스트레스, 학업, 진로, 대인관계의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는 복학 후 특수 학과의 경험을 주제로 이루어지기에 모든 군 전역 후 복학한 대학생을 대표하기엔 아쉬운 점이 있다.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 경험의 개념도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양적과 질적 연구가 합해진 개념도 연구가 적절하다고 본다.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초점질문을 만들어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통해 진술문을 산출하며,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경험에 대한 요인, 차원, 군집, 공감 평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개인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등 기초자료에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 2. 개념도 연구절차

본 연구는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하여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개념도 준비하기(Preparing for Concept Mapping), 2단계, 아이디어 산출하기(Generating the Ideas), 3단계, 진술문 구조화하기(Structuring the Statement), 4단계, 개념도 분석(Concept Mapping Analysis), 5단계, 개념도 해석하기(Interpretation the Maps), 6단계, 활용(Utilization)의 여섯 단계로 설정하였다(최윤정 외, 2022; Kane & Trochim, 2007).

(1) 1단계 : 개념도 준비하기 (Preparing for Concept Mapping)

1단계는 개념도를 위한 준비단계로, 진술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초점질문 또는 연구문제를 구체화한다. 연구 참여자는 최소 8명에서 40명 이하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Kane & Trochim, 2007). 본 연구에서는 제3장, 제1절 연구 참여자 기준을 통해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 최소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참여 동의서와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초점질문을 개발하였다. 초점질문은 다음과 같다.

“군 전역 후에 복학하여 대학 생활 중 겪은 어려움에 대해 가급적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2) 2단계 : 진술문 산출하기 (Generating the Ideas)

2단계는 진술문 산출 단계로,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한다. 진술문을 종합할 때, 공통된 진술문을 통합하여 적어도 100개 이하의 수로 단축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민경화 외, 2007; Kane & Trochim, 2007). 면담을 통해 얻은 진술문은 하나로 통합하여 목적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중복되는 진술문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하기 전 면담 대상자에게 연구 취지 및 목적, 녹음, 면담 방식

과 내용, 초점질문, 소요 시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안내 및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해 생생하고 풍부하게 알아보고자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연구 참여자의 반응을 하도록 하고, 더 나은 촉진적 반응을 돕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확인을 위한 추가 질문을 하였다. 모든 면담은 녹음 후 축어록을 만들어 검토하였다. 모든 면담이 진행 후 진술문 구조화 작업과 추후 일정 안내하였다.

본 면담 일정은 2023년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C대학의 상담 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군 전역 후 복학한 8명 남학생이 진술한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진술문을 344개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중복되는 아이디어를 하나로 통합하고, 개인적인 내용과 모호한 내용을 삭제하고, 명료화와 재진술을 통해 통합된 아이디어는 원자료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72개의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3) 3단계 : 진술문 구조화하기 (Structuring the Statement)

3단계는 진술문들을 구조화하는 단계로,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산출된 진술문들을 연구 참여자들이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평정하는 과정이다(민경화 외, 2007).

첫 번째 과제로, 상호 간 관련성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비구조화된 카드분류 절차를 사용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끼리' 또는 '이해되는 방식으로' 분류하게 한다. 단, 하나의 진술문을 하나의 파일로 분류할 수 없고, 주어진 아이디어 진술문 전부를 하나의 파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부과한다(Kane & Trochim, 2007).

두 번째 과제로는 각 진술문을 주어진 차원에 따라 평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각 분류한 파일에 대해 이름을 명명하고, 각 진술문에 대해 자신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에 5점 리커트 유형 척도(1점 =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본 연구는 아이디어 산출 단계에서 면담을 진행했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2023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하였다. 산출된 진술문들에 번호를 부여하여 각각의 카드로 만들어 준비하였고, 참여자들과 사전 일정 협의 후 만나 활동에 대한 유의사항과 안내를 한 후 분류하도록 하였다. 또한, 진술문에 대

한 공감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4) 4단계 : 개념도 분석 (Concept Mapping Analysis)

4단계 개념도 분석단계로, 구조화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하고 개념도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다. 자료 수집 이후에 세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첫 번째, 분류된 자료를 통해 유사성 행렬표를 만든다. 이는 같은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은 1로 코딩하고, 다른 집단에 묶인 진술문은 0으로 코딩하여 진술문을 구조화하는 작업을 수행한 연구 참여자 수 만큼 유사성 행렬을 만든다. 그 후, 전체 파일을 합산하여 집단 유사성 행렬(GSM: Group Similarity Matrix)을 작성한다.

두 번째, 집단 유사성 행렬표를 두 차원 지도 위에 각 진술문이 별개의 점으로 위치하기 위해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을 실시한다.

세 번째, 다차원 척도법으로 분석하여 나온 결과로 x, y 좌표 값은 위계적 군집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된다. 좌표 값을 위계적 군집분석(HCA: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통해 진술문들을 내적으로 일관된 그룹으로 분할하여 개념도를 그린다. 보통 Ward의 연결법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의미있는 것으로 만들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Kane & Trochim, 2007).

본 연구는 아이디어 산출과 진술문 구조화를 통해 분류된 자료를 통해 집단 유사성 행렬표를 작성하였다. 그 후 다차원 척도법을 진행한 후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개념도를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절차는 SPSS 27.0버전을 사용하여 최종 개념도를 도출하였다.

(5) 5단계 : 개념도 해석하기 (Interpretation the Maps)

5단계는 앞선 진행된 절차를 거쳐 작성된 개념도(Concept map)를 해석하는 단계이다. 해석할 자료들은 진술문과 군집 목록, 차원, 위치, 군집 명, 공감 평정도를 활용한다. 군집 지도는 진술문들이 어떻게 묶이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해 경험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문과 군집 목록을 해석하여 각 군집에 대한 해석 및 명명을 하였다. 또한, 다차원 척도법과 군집분석을 통하여 군집 지도를 만들었으며, 통계적 분석을 통해 공감 평정도 평균을 내어 제시하였다.

6) 6단계 : 활용 (Utilization)

6단계는 연구결과를 연구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의 경험에 대한 요인과 차원, 군집, 공감 평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 상담, 집단 프로그램, 척도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 제3절 측정 도구

## 1. 대학생활적응 척도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Baker & Siryk(1989)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이윤정(1999)이 번안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인으로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총 5가지 요인으로 전체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형식은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로 Likert식 5점 척도이며 각 문항을 점수화했을 때 25점부터 125점까지이다.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각 하위요인별 관련 문항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대학생활적응 척도와 문항구성**

| | 하위요인 | 문항번호 | 문항수 |
|---|---|---|---|
| 대학생활적응 | 학업적 적응 | 5, 7*, 9*, 13, 25 | 5 |
| | 사회적 적응 | 2, 11, 14, 18*, 23 | 5 |
| | 정서적 적응 | 3*, 8*, 17*, 22*, 24* | 5 |
| | 신체적 적응 | 4*, 10, 12*, 16*, 19 | 5 |
| | 대학에 대한 애착 | 1, 6, 15*, 20*, 21* | 5 |
| **전체** | | | 25 |

*역채점 문항

# 제4장 연구결과

## 제1절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내용

본 연구는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진술문 344개를 추출하였다. 중복되는 아이디어를 하나로 통합하고, 개인적인 내용과 모호한 내용을 삭제하고, 명료화와 재진술을 통해 통합된 아이디어는 원자료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72개의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최종 진술문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최종 진술문**

| 번호 | 최종 진술문 |
|---|---|
| 1 | 복학 후 혼자 아싸로 생활하였다. |
| 2 |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끼어들 곳이 없었다. |
| 3 | 학업에 노력하였지만,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였다. |
| 4 | 학과에 아는 사람이 없어 학과 관련 정보(행사, 공모전)를 얻지 못하였다. |
| 5 | 강의에 대한 팁이나 노하우를 알려 줄 사람이 주위에 없었다. |
| 6 | 복학하고 난 후 학교 생활을 혼자한다는 느낌이 강했다. |
| 7 | 다른 사람들은 서로 잘 어울리지만,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였다. |
| 8 | 복학 후 나는 여전히 군인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성숙해 보였다. |
| 9 | 학과나 학교에서 주류인 학생에서 밀려났다. |
| 10 | 과실이나 동아리방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조용해졌다. |
| 11 | 입대 전에 배웠던 것(기초적인 학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 |
| 12 | 여학생들과 군대에 가지 않는 동기보다 학업, 취업 및 진로 등에서 뒤떨어진 느낌이다. |
| 13 | 유행이나 흐름에 뒤처진 느낌을 받았다. |
| 14 | 복학 후 학교생활은 슬프고 외로웠다. |
| 15 | 학과행사(체육대회, MT, 개강파티 등)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되고 가기 꺼려졌다. |

| | |
|---|---|
| 16 | 복학 후 학교 생활은 재미가 없었다. |
| 17 | 학회나 동아리에서는 고학번이라고 가입을 제한하였다. |
| 18 | 학교에 오랜만에 가니 건물이 낯설고 바뀐 강의실을 찾기가 어려웠다. |
| 19 | 수업에서 이미 친해진 무리들을 보면 부러웠다. |
| 20 | 첫 수업 때 혼자 앉아 수업을 들었다. |
| 21 | 복학 후 수업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하니 버거웠다. |
| 22 | 학과행사(체육대회, MT, 개강파티 등)에 참여하는 애들이 부러웠다. |
| 23 | 복학 후 학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에 가곤 하였다. |
| 24 | 같은 처지의 복학생이 없어서 복학 후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없었다. |
| 25 | 사회에서 소외받는 것 같았다. |
| 26 | 여학생들과 군대에 가지 않는 동기들이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가는 것을 보니 조급해졌다. |
| 27 | 전역 후 학업이나 진로에 있어 준비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
| 28 |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들과 수업을 듣기가 힘들었다. |
| 29 | 학과행사(체육대회, MT, 개강파티 등)에 “내가 참여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 30 | 사람들은 복학생에 대해 좋지않은 편견과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았다. |
| 31 |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취업과 진로가 걱정되었다. |
| 32 | 취업과 진로가 현실로 다가오고 조급함이 들었다. |
| 33 | 복학 후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외로웠다. |
| 34 | 조별과제에서 아는 것이 없어서 쉽게 나서지 못하였다. |
| 35 | 학과에 소속감이 없어져 멀어진 느낌이었다. |
| 36 | 조별과제에서 다른 조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벽이 느껴졌다. |
| 37 | 학과 사람들은 나를 어려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
| 38 | 전공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 |
| 39 | 학습 공백이 없던 다른 사람들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다. |
| 40 | 공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잡히지 않아 스트레스가 있었다. |
| 41 | 나의 전공에 대해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하였다. |
| 42 | 전공과 진로에 대해 현실적으로(경제적, 취업률 등) 바라보게 되었다. |
| 43 |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부담감이 들었다. |
| 44 | 다른 사람들과 이어줄 수 있는 활동(행사, 동아리, 학생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

| | |
|---|---|
| 45 |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하였다. |
| 46 | 혼자 수업을 듣다 보니, 모르는 것을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
| 47 |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을 먹었고, 눈치가 보였다. |
| 48 |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족보나 시험에 대한 정보를 구하지 못하였다. |
| 49 | 다른 사람들이 수업 끝나고 놀러 가는 것을 보고 부럽고 외로웠다. |
| 50 | 조별과제에서 마지막까지 조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하게 되었다. |
| 51 | 수업 전 서로 떠드는 학생들 사이에 가만히 기다리는 내가 외로웠다. |
| 52 | 처음에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다. |
| 53 | 교수님이 수업에 기초가 있는 상태로 수업하니 따라가기 힘들었다. |
| 54 | 다른 사람들이 “복학생은 아저씨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았다. |
| 55 | 최대한 빨리 취업을 해야할 것 같은 부담이 들었다. |
| 56 | 전역 후 "나도 연애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실은 아니었다. |
| 57 | 복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낯선 환경이었다. |
| 58 | 과실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가기가 꺼려졌었다. |
| 59 | 복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문화 차이가 나는 것 같았다. |
| 60 | 다른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섣불리 다가가기 어려웠다. |
| 61 | 군대 공백기로 인해 남들과 뒤처진 출발을 하여 부담감과 조급함이 들었다. |
| 62 | 학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인사해주면 어떻게 받아줘야할지 고민이었다. |
| 63 | 공강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심심하였다. |
| 64 | 다른 학생들이 “내가 복학생이라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였다. |
| 65 | 진로와 취업에 전공을 살릴지, 다른 것을 해볼지 고민하였다. |
| 66 | 사회로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
| 67 | 군 복무 이전과 수업 분위기가 달라 적응이 힘들었다. |
| 68 |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변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다. |
| 69 | 대학이나 학과의 행정서비스가 복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
| 70 | 남자 복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71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알바를 시작하였다. |
| 72 | 가족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았다. |

## 제2절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 차원과 군집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의 내용을 어떤 차원에서 바라보는지 알아보기 위해 72개의 최종 진술문은 제시하고 비슷하고 유사한 진술문끼리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면담참여자는 최소 5개에서 최대 12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M$=7.25, $SD$=2.37). 추후 개인별로 유사성 행렬을 만든 후 합산하여 집단 유사성 행렬(GSM)을 제작하였고, 다차원 척도법(HCA)을 실시하였다.

1) 차원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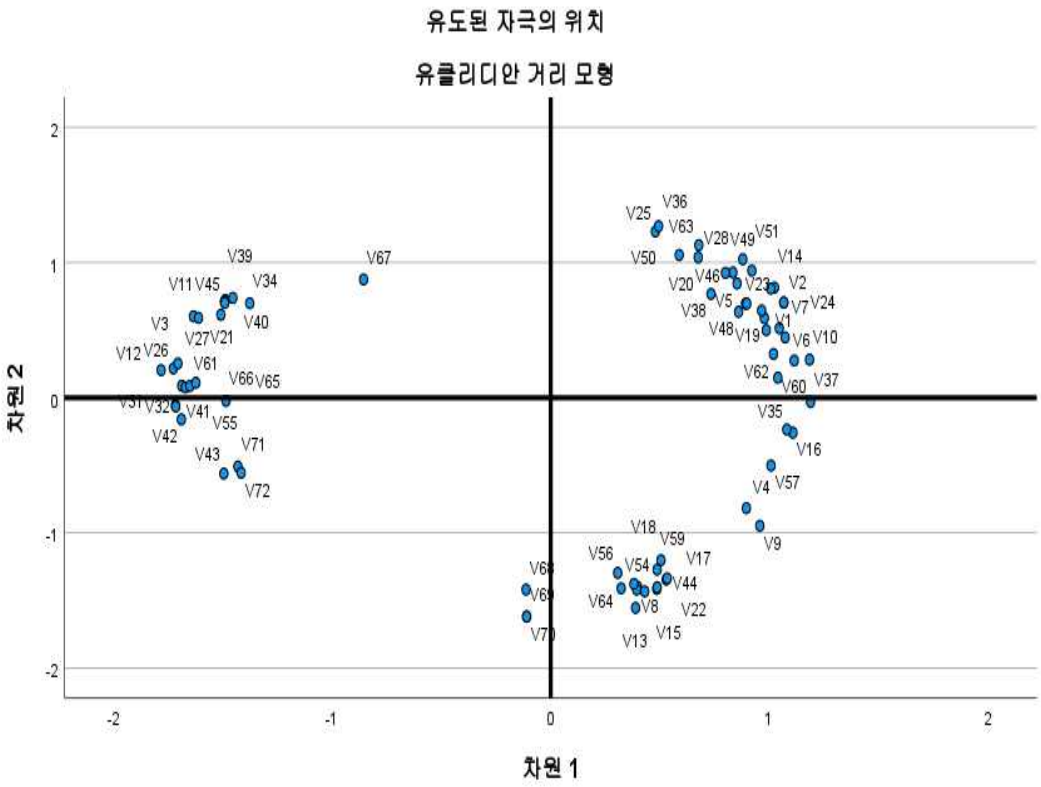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에 대한 차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스트레스 지수(Kane & Trochim, 2007)를 고려하였다. 스트레스 지수는 입력된 유사성 행렬값의 불일치 정도를 지도에 거리로 나타낸다. 높은 스트레스 값은 입력된 행렬표 데이터에 더 큰 불일치가 존재하는 의미이다. 또한, 낮은 스트레스 값은 데이터 간의 일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원의 수를 결정할 때, 이론상 차원의 수는 1에서 진술문 수 -1까지 가능하나, 현실적 차원에서 3차원 이상은 해석이 어렵다. Kane과 Trochim(2007)은 스트레스 지수는 .205~.365 사이 값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값이 .319로, Kane과 Trochim(2007)이 제안한 적절한 스트레스 범위 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통계적 기준을 고려하여 2개의 차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차원별 스트레스 지수 및 설명량($R^2$)은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차원별 스트레스 지수 및 설명량 $R^2$**

| 차원의 수 | 스트레스(stress) | 설명량($R^2$) | $R^2$ 증가량 |
|---|---|---|---|
| 1 | .421 | .088 | |
| 2 | .365 | .648 | .56 |
| 3 | .358 | .725 | .07 |
| 4 | .357 | .725 | .00 |

2) 차원의 해석

다차원 척도법으로 분석을 실시한 후 차원의 수를 2차원으로 결정하였다. 각 차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해석을 위해 진술문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총 72개의 최종 진술문을 지도 위에 점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 (2차원)**

산출된 각 진술문의 좌표값(x, y)을 토대로 1차원(X축)과 2차원(Y축)의 양쪽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지도상 가까이 위치한 진술문들은 유사성이 높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았다. 차원 명을 명명하기 위해 X축과 Y축의 양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을 값이 큰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이는 <표 5>와 같다.

**<표 5> X축, Y축 양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및 좌표값**

| | X축 정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 좌표값 |
|---|---|---|
| 37 | 학과 사람들은 나를 어려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 1.1882 |
| 10 | 과실이나 동아리방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조용해졌다. | 1.1836 |
| 6 | 복학하고 난 후 학교 생활을 혼자한다는 느낌이 강했다. | 1.1134 |
| | X축 부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 좌표값 |
| 12 | 여학생들과 군대에 가지 않는 동기보다 학업, 취업 및 진로 등에서 뒤떨어진 느낌이다. | -1.7807 |
| 26 | 여학생들과 군대에 가지 않는 동기들이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가는 것을 보니 조급해졌다. | -1.7248 |
| 31 |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취업과 진로가 걱정되었다. | -1.7153 |
| | Y축 정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 좌표값 |
| 36 | 조별과제에서 다른 조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벽이 느껴졌다. | 1.2691 |
| 25 | 사회에서 소외받는 것 같았다. | 1.2300 |
| 63 | 공강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심심하였다. | 1.1292 |
| | Y축 부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 | 좌표값 |
| 69 | 대학이나 학과의 행정서비스가 복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 -1.6179 |
| 70 | 남자 복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 -1.6179 |
| 13 | 유행이나 흐름에 뒤처진 느낌을 받았다. | -1.554 |

먼저, <표 5>의 1차원의 X축 정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과 사람들(37), 과실이나 동아리방(10), 학교 생활을 혼자(10)라는 진술문의 내용을 토대로 외부의 타인과 관계를 비롯한 환경에 대한 적응에서 오는 어려움이 분포되어있다. 따라서, X축 정적 방향을 '관계, 맥락적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반면, 1차원 X축 부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학생(여학생, 군대에 가지 않는 동기)들과의 비교(12, 26), 자신의 학업(31), 진로와 관련된 불확실로 인한 심리 내적인 어려움을 내보이며,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성취에 대한 부분이 분포되어있다, 따라서, X축 부적 방향을 '성취 수행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2차원의 Y축 정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복학 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함(36), 복학 후 사회에서의 소외감(25), 혼자 있음에 따라 심심함(63)을 토대로 주로 대학생활에서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난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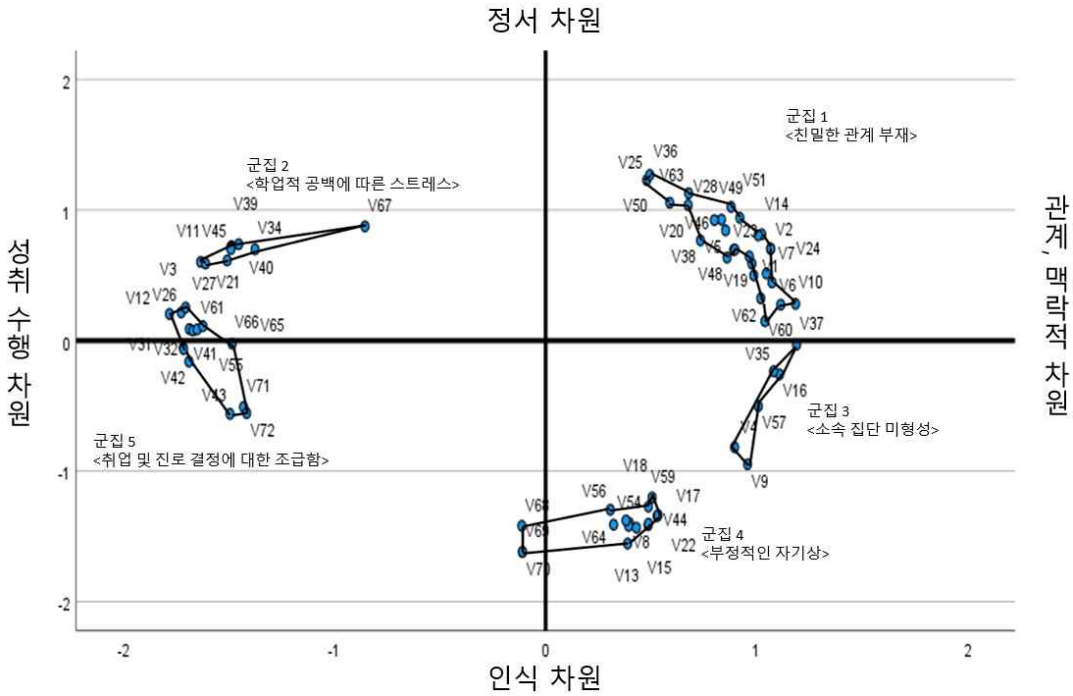
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Y축 정정 방향을 '정서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반면, 2차원 Y축 부적 방향 극단에 위치한 진술문들의 내용으로 행정서비스가 복학생에게 배려하지 않고(69), 복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70), 유행에 뒤처진 인식(13)을 받는다는 부분으로 복학생에 대한 자신이나 타인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Y축 부적 방향을 '인식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1차원 내용을 '관계, 맥락적 차원-성취 수행 차원'으로 명명하였고, 2차원의 내용은 '정서 차원-인식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최종 개념도는 <그림 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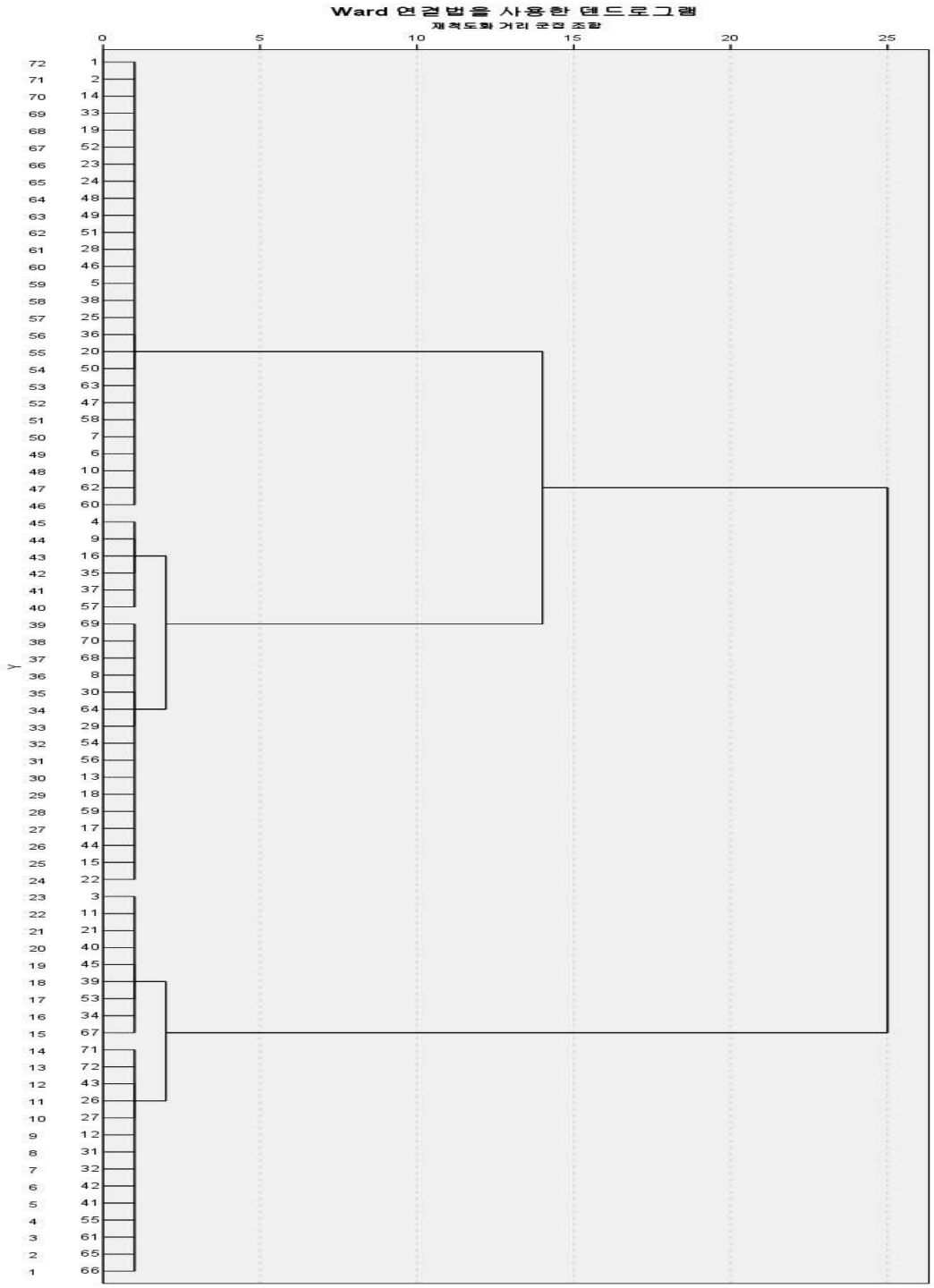
3) 군집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72개의 최종 진술문을 토대로 위계적 군집분석(Ward 연결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덴드로그램(Dendrogram)이 도출되었다. Ward의 군집분석으로 나타난 덴드로그램 상 적절한 범주의 수는 3~5개이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는 최소 5개에서 최대 12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M$=7.25, $SD$=2.37),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서로 같이 분류된 군집을 확인하여 진술문이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갖는지, 진술문끼리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비교하였다. 위 기준을 토대로 본 연구는 진술문들을 총 5개의 군집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덴드로그램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위의 절차를 통해 군집의 개수를 확정하였으며, 각 군집들의 이름을 명명하기 위해 각 군집에 있는 진술문들이 어떠한 유사성을 가지는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면담참여자들이 진술문 분류 과정에서 각 군집에 붙인 이름을 확인 후 유사성 분류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끝으로 각 군집의 진술문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군집명으로 명명하였다. 최종 군집별 진술문의 내용과 진술문 별 공감도는 다음 <표 6>와 같다.




<그림 2>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개념도




<그림 3> Ward 방법에 따른 덴드로그램 결과

## <표 6> 군집 및 공감평정도

| 문항 | 군집 및 진술문 (진술문 수) | 공감도 M (SD) |
|---|---|---|
| | **군집 1 <친밀한 관계 부재> (27)** | 3.33 (.481) |
| 58 | 과실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가기가 꺼려졌었다. | 4.13 (1.126) |
| 2 |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끼어들 곳이 없었다. | 4.13 (.835) |
| 19 | 수업에서 이미 친해진 무리들을 보면 부러웠다. | 3.88 (1.246) |
| 33 | 복학 후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외로웠다. | 3.88 (1.126) |
| 20 | 첫 수업 때 혼자 앉아 수업을 들었다. | 3.75 (1.488) |
| 48 |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족보나 시험에 대한 정보를 구하지 못하였다. | 3.75 (1.488) |
| 5 | 강의에 대한 팁이나 노하우를 알려 줄 사람이 주위에 없었다. | 3.75 (1.165) |
| 46 | 혼자 수업을 듣다 보니, 모르는 것을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 3.75 (1.165) |
| 62 | 학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인사해주면 어떻게 받아줘야할지 고민이었다. | 3.63 (1.188) |
| 23 | 복학 후 학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에 가곤 하였다. | 3.63 (.916) |
| 38 | 전공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 | 3.50 (1.414) |
| 6 | 복학하고 난 후 학교 생활을 혼자한다는 느낌이 강했다. | 3.50 (1.195) |
| 49 | 다른 사람들이 수업 끝나고 놀러 가는 것을 보고 부럽고 외로웠다. | 3.38 (1.506) |
| 14 | 복학 후 학교생활은 슬프고 외로웠다. | 3.38 (1.061) |
| 51 | 수업 전 서로 떠드는 학생들 사이에 가만히 기다리는 내가 외로웠다. | 3.25 (1.282) |
| 52 | 처음에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다. | 3.25 (1.165) |
| 60 | 다른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섣불리 다가가기 어려웠다. | 3.25 (.707) |
| 63 | 공강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심심하였다. | 3.13 (1.458) |
| 28 |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들과 수업을 듣기가 힘들었다. | 3.13 (1.126) |
| 36 | 조별과제에서 다른 조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벽이 느껴졌다. | 3.00 (1.069) |
| 24 | 같은 처지의 복학생이 없어서 복학 후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없었다. | 2.88 (1.553) |
| 1 | 복학 후 혼자 아싸로 생활하였다. | 2.88 (1.356) |
| 10 | 과실이나 동아리방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조용해졌다. | 2.88 (.835) |
| 25 | 사회에서 소외받는 것 같았다. | 2.63 (1.408) |
| 47 |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을 먹었고, 눈치가 보였다. | 2.63 (1.061) |
| 50 | 조별과제에서 마지막까지 조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하게 되었다. | 2.63 (1.061) |
| 7 | 다른 사람들은 서로 잘 어울리지만,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였다. | 2.50 (1.309) |

| | | |
|---|---|---|
| | **군집 2 <학업적 공백에 따른 스트레스> (9)** | 3.45 (.598) |
| 11 | 입대 전에 배웠던 것(기초적인 학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 | 4.00 (1.069) |
| 39 | 학습 공백이 없던 다른 사람들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다. | 4.00 (.756) |
| 21 | 복학 후 수업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하니 버거웠다. | 4.00 (.535) |
| 40 |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잡히지 않아 스트레스가 있었다. | 3.75 (1.165) |
| 67 | 군 복무 이전과 수업 분위기가 달라 적응이 힘들었다. | 3.50 (1.195) |
| 34 | 조별과제에서 아는 것이 없어서 쉽게 나서지 못하였다. | 3.25 (1.488) |
| 45 |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하였다. | 3.25 (1.282) |
| 53 | 교수님이 수업에 기초가 있는 상태로 수업하니 따라가기 힘들었다. | 3.25 (1.282) |
| 3 | 학업에 노력하였지만,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였다. | 2.13 (1.553) |
| **번호** | **군집 3 <소속 집단 미형성> (6)** | 3.02 (.437) |
| 57 | 복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낯선 환경이었다. | 3.63 (.744) |
| 37 | 학과 사람들은 나를 어려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 3.38 (1.188) |
| 16 | 복학 후 학교 생활은 재미가 없었다. | 3.13 (1.246) |
| 35 | 학과에 소속감이 없어져 멀어진 느낌이었다. | 2.88 (.338) |
| 9 | 학과나 학교에서 주류인 학생에서 밀려났다. | 2.63 (1.506) |
| 4 | 학과에 아는 사람이 없어 학과 관련 정보(행사, 공모전)를 얻지 못하였다. | 2.50 (1.195) |
| **번호** | **군집 4 <부정적인 자기상> (16)** | 3.35 (.431) |
| 56 | 전역 후 “나도 연애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실은 아니었다. | 4.00 (1.414) |
| 15 | 학과행사(체육대회, MT, 개강파티 등)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되고 가기 꺼려졌다. | 4.00 (1.069) |
| 70 | 남자 복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 3.88 (.835) |
| 29 | 학과행사(체육대회, MT, 개강파티 등)에 “내가 참여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3.63 (1.408) |
| 64 | 다른 학생들이 “내가 복학생이라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였다. | 3.63 (1.061) |
| 59 | 복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문화 차이가 나는 것 같았다. | 3.63 (.916) |
| 44 | 다른 사람들과 이어줄 수 있는 활동(행사, 동아리, 학생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 3.50 (1.414) |

| | | |
|---|---|---|
| 54 | 다른 사람들이 “복학생은 아저씨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았다. | 3.50 (1.309) |
| 13 | 유행이나 흐름에 뒤처진 느낌을 받았다. | 3.38 (1.408) |
| 68 |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변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다. | 3.13 (1.246) |
| 30 | 사람들은 복학생에 대해 좋지않은 편견과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았다. | 3.13 (.835) |
| 22 | 학과행사(체육대회, MT, 개강파티 등)에 참여하는 애들이 부러웠다. | 3.00 (1.512) |
| 8 | 복학 후 나는 여전히 군인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성숙해보였다. | 2.88 (1.458) |
| 69 | 대학이나 학과의 행정서비스가 복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 2.88 (1.126) |
| 17 | 학회나 동아리에서는 고학번이라고 가입을 제한하였다. | 2.75 (1.488) |
| 18 | 학교에 오랜만에 가니 건물이 낯설고 바뀐 강의실을 찾기가 어려웠다. | 2.75 (1.488) |
| **번호** | **군집 5 <취업 및 진로 결정에 대한 조급함> (14)** | 3.92 (.611) |
| 31 |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취업과 진로가 걱정되었다. | 4.50 (.756) |
| 32 | 취업과 진로가 현실로 다가오고 조급함이 들었다. | 4.50 (.756) |
| 42 | 전공과 진로에 대해 현실적으로(경제적, 취업률 등) 바라보게 되었다. | 4.50 (.756) |
| 12 | 여학생들과 군대에 가지 않는 동기보다 학업, 취업 및 진로 등에서 뒤떨어진 느낌이다. | 4.50 (.535) |
| 55 | 최대한 빨리 취업을 해야할 것 같은 부담이 들었다. | 4.50 (.535) |
| 66 | 사회로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 4.38 (.916) |
| 27 | 전역 후 학업이나 진로에 있어 준비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 4.13 (1.126) |
| 61 | 군대 공백기로 인해 남들과 뒤처진 출발을 하여 부담감과 조급함이 들었다. | 4.13 (.991) |
| 43 |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부담감이 들었다. | 3.75 (1.488) |
| 26 | 여학생들과 군대에 가지 않는 동기들이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가는 것을 보니 조급해졌다. | 3.50 (1.069) |
| 65 | 진로와 취업에 전공을 살릴지, 다른 것을 해볼지 고민하였다. | 3.38 (1.408) |
| 41 | 나의 전공에 대해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하였다. | 3.25 (1.282 |
| 72 | 가족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았다. | 3.00 (1.069) |
| 71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알바를 시작하였다. | 2.88 (1.126) |

먼저, 군집 1은 72개의 진술문 중 27개가 포함되었다. 군집 1의 진술문은 대인관계 측면에서 얻는 어려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혼자 지낸다는 내용(1, 2, 20, 23, 46, 47, 48, 51, 58, 63)과 혼자 있어 다른 사람과 접점이 없다는 내용(5, 7, 19, 24, 28, 36, 38, 46, 50, 62), 그로 인해 느끼는 외롭고 심심한 감정(14, 25, 49, 51, 63)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친밀한 관계가 없어서 혼자 밥을 먹거나, 수업을 듣고, 정보(노하우, 취업, 족보)를 얻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그로 인해 외로움과 무료함을 경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군집 1은 '친밀한 관계 부재'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2는 72개의 진술문 중 9개가 포함되었다. 군집 2의 진술문은 주로 학업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공부에 대한 자신감 하락(45), 공부 스트레스(40), 다른 학생들과의 학업 차이(21, 34, 53, 67), 다시 시작하는 공부로 인한 부담(11, 21)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학업 공백으로 인해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부하기가 버겁고 자신감이 하락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군집 2는 '학업적 공백에 따른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72개의 진술문 중 6개가 포함되었다. 군집 3의 진술문은 다른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내용(9, 35)과 멀어짐으로 인해 갖게 되는 어려움(4, 16, 37, 57)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군집 1(친밀한 관계 부재)의 내용과 다르게 개인적 관계보다 소속감에 대한 부재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군집 3은 '소속 집단의 미형성'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72개의 진술문 중 16개가 포함되었다. 군집 4의 진술문은 문화나 흐름에 뒤처지거나(8, 13, 17, 18, 59), 학과 행사(체육대회, MT, 개강파티)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15, 22, 29, 44)을 느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30, 54, 64)으로 인해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으며, 학과와 대학에서 복학생에 대해 관심이 없다(68, 69, 70)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로 인해 복학생이라는 상황에서 오는 위축감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등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군집 4는 '부정적인 자기상'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5는 72개의 진술문 중 14개가 포함되었다. 군집 5의 진술문은 주로 취업과 진로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취업과 진로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내용(12, 26, 61), 취업과 진로에 걱정은 되지만, 자신이 해 놓은 것이 없다는 내용(27, 31),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31, 61, 66)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취업과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32, 41, 42, 55, 65, 66)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부담감(43, 71, 72)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같은 나이의 여학생들과 비교, 현실에 대한 인식, 가족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군집 5는 '취업 및 진로 결정에 대한 조급함'으로 명명하였다.

## 제3절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 공감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2차 면담을 통해서 진술문 분류 작업과 함께, 공감도 평정을 요청하였다. 즉,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관한 72개의 최종 진술문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지 5점 리커트 척도(1점 =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의 각 진술문에 대한 공감도는 <표 6>에 포함되어 있다.

72개의 진술문 전체에 대한 공감도 평균은 3.44이었다. 72개의 진술문 중 군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들이 가장 공감하다고 평가한 진술문은 '여학생들과 군대에 가지 않는 동기보다 학업, 취업 및 진로 등에서 뒤떨어진 느낌이다.',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취업과 진로가 걱정되었다', '취업과 진로가 현실로 다가오고 조급함이 들었다.', '전공과 진로에 대해 현실적으로(경제적, 취업률 등) 바라보게 되었다.', '최대한 빨리 취업을 해야할 것 같은 부담이 들었다.'가 해당된다. 이는 공감도 평균 점수에서 모두 4.50점의 평균을 보여 상위에 해당하였고, 군집 5(취업 및 진로 결정에 대한 조급함)에 속하였다. 즉, 군집 5는 공감도가 평균 3.92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공감도 평균을 보였다. 이는 군 전역 후 복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진로 및 취업 영역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집 5 다음으로 높은 공감도를 보인 것은 군집 2(학업적 공백에 따른 스트레스, $M$=3.45)로 나타났고, 대표적 문항으로 '복학 수업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하니 버거웠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잡히지 않아 스트레스가 있다.', '학습 공백이 없던 다른 사람들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통해 군 전역 후 복학생들이 진로와 학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의 군집으로 군집 4(부정적인 자기상, $M$=3.35), 군집 1(친밀한 관계 부재, $M$=3.33)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군집 3(소속집단 미형성, $M$=3.02)로 군집 중 공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속집단이 학교 안에 형성되지 않은 점이 아쉽더라도 다른 군집에 비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역은 아님을 보여준다.

# 제5장 논의 및 한계점

## 제1절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군 전역 후 복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어려움의 요인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군 전역 후 복학생 8명을 대상으로 1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추후 최종 진술문을 선정한 뒤 2차 면담에서 진술문에 대한 공감도를 평정하고, 같은 군집끼리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한 진술문을 바탕으로 유사행렬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차원 척도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관계, 맥락적 대 성취 수행' 차원과 '정서 대 인식' 차원으로 2개의 차원에서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요인이 나타났다. 또한, 진술문은 군집분석을 통해 최종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군집 1(친밀한 관계 부재), 군집 2(학업적 공백에 따른 스트레스), 군집 3(소속 집단 미형성), 군집 4(부정적 자기상), 군집 5(취업 및 진로 결정에 대한 조급함)로 나타났다. 공감도가 제일 높게 나온 군집은 군집 5로 나타났고, 군집 2가 그 뒤를 따랐다. 주요한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복학 후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에 있어 겪은 요인으로 군집 5(취업 및 진로 결정에 대한 조급함)에 가장 높은 공감을 보였다. 대학생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진로이다. Super(1953)의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탐색기 후반과 확립기 초반이라 한다. 이는 탐색기 시기는 진로에 있어 계획하고, 자기와 맞는 진로를 준비하여 선택을 점점 좁혀가 확립기로 발전되고, 확립기 시기에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여 나아가는 시기이다. 그러나, 복학생은 진로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하여 진로를 준비할 수 없는 단절 경험을 하게 된다. 전역 후 복학한 남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다시 준비하려 하지만 복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과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김동하 외, 2021; 김현미, 2007; 노혜림 외, 2015). 또한, 자신과 같이 입학하였던 다른 여학생들이나 군대에 가지 않은 동기들을 보고 그들과 자신이 뒤처진 느낌을 받아 본인은 진로에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조급함과 불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 Swanson & Woitke(1997)는 진로장벽을 진로발달을 어렵

게 만드는 개인 내적, 환경적 사건이나 조건이라고 하였다. 진로장벽은 외적 장벽과 내적 장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군대라는 외적 장벽으로 인해 복학생이 진로에 있어 단절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군대 공백기로 인해 남들과 뒤처진 출발을 하여 부담감과 조급함이 들었다.'(공감도, 4.13)라는 진술문을 통해 군대라는 것이 진로에 있어 장애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할 때, 전역 후 복학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진로 및 취업 분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박진선(2022)은 학업 및 진로와 고민을 가지는 군 전역 후 복학생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활용하여 진로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복학생에 초점을 맞춘 진로상담 개입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복학 후 진로와 관련해 경험하는 조급함, 사회비교 경향성, 부담감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진로에 대한 조급함과 더불어 군 전역 후 복학생들은 학업적 공백에 따른 스트레스(군집 2)에 높은 공감을 보였다. 대학생 시기는 학업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시기에 해당한다(이숙정, 유지현, 2008). 따라서, 주어진 학업량을 따라가고 만족스러운 학업성취를 얻는 것은 대학생에게 중요한 일이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입시를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대학생 시기 학점에 대한 관심에도 많은 집중이 된다. 하지만, 군에 입대한 뒤에는 학업에 충실하게 몰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더구나 군 전역 후에 학업에 대한 동기가 높아진 상태에서(노해림, 2015), 실제로 이러한 동기를 이끄는 행동을 취함에 있어 학업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전역 후 복학생들이 학업관련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결과(김동하 외, 2021; 김선영, 2016)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 어떠한 학업적 어려움을 경험하는지에 있어서 '과거 공부한 것이 기억에 나지 않고, 기초는 알 것으로 생각하고 교수님이 진도를 나가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대학 내 학습지원센터에서는 복학생을 위한 학업 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학업공백을 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대인관계에 대한 진술문으로 이루어진 군집으로는 군집 1(친밀한 관계 부재), 군집 3(소속 집단 미형성)로 되어 있다. 군집 3(소속 집단 미형성)의 공감도가 군집 1(친밀한 관계 부재)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비슷하지만,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는 원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단체나 활동은 선호는 뚜렷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MZ세대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출생한 사람을 Z세대라 한다. 연구 참여자 복학생들은 Z세대에 속하는데, MZ세대가 인식하는 관계의 측면과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 전정화(2023)의 연구는 MZ세대는 현재 중심의 가치 지향적 사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군집 1(친밀한 관계 부재)의 진술문을 보면, 자신의 진로나 학과 정보 공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찾는 점이 보인다. MZ세대는 공동체, 집단활동, 팀플레이를 선호하지 않고, 불필요한 대인관계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한다. 본 연구와 비슷하게 소속감에서 오는 어려움보단 개인적인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에 공감도가 높았다. 또한, 이미 굳어져 버린 대인관계에 대해 굳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현재 관계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의 인간관계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친밀한 관계 형성을 원하지만, 대인관계 관련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군 전역 복학생을 위하여 대인관계 기술훈련을 조력하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겠다.

넷째, 군집 4의 경우는 부정적 자기상에 해당하는 진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 경험이 성장의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복학 후 적응이라는 어려움을 마주해야 하는 역경으로 느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군 경험의 긍정적 측면을 조명한 김선영(2016), 남경아 외(2018)의 연구와는 다소 상충하는 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의 경험이 물론 중요하지만, 군대라는 공백기가 진로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게 하고, 학업에서 어려움을 만들게 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더구나,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생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얻게 되고, 대인관계나 다양한 맥락에서 어려움을 보인다고 한다. 대학 생활 내 여러 장면에서 자신이 수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불친절한 학과 시스템과 동아리, 학과에서 무언의 무시와 차별을 당하는 모습이 보이며, 학과나 대학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점이 없어 어려움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복학생의 적응을 이해함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섯째, Covid-19, IT 기술발전과 맞물려 대학 환경에도 급격한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 또한 군 전역 전과 후에 달라진 환경에 대한 적응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주목할 만한 진술문으로 '군 복무 이전과 수업 분위기가 달라 적응이 힘들었다'. '복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낯선 환경이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변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다' 와 같은 문항이 있다. 이처럼

군대에 입대하기 전 자신이 다녔던 학교생활과 복학 후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달라졌다는 점이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입대 전 Covid-19의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 교육을 듣는 것이다. 대면 수업도 이루어졌지만, 비대면 수업의 비중이 높아 다른 학생과 교수 등 타인과 만날 기회가 적어지고, 온라인으로 과제와 팀플, 시험 등 주로 이루어졌다(이하연, 고주은, 주민호, 2021).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하였을 때 Covid-19의 여파가 줄어들어 대면 수업을 하게 되고 이전과 다른 학업 방식과 분위기로 인해 복학생들은 대학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함이 있다. 또한, IT 기술을 대학 운영 전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나종연, 이진명, 이화옥, 조은빛, 2016). 가령, 기술 기반의 수업과 교육행정서비스의 보편화로 대면 수업임에도 기존 강의실에서 출석이 아닌, LMS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석하는 변화가 있다. 또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과 과제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기술활용이 보편화되었다. 그로 인해 복학생은 군대 입대 전과 다른 환경에 낯설다고 느끼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군 전역 후 복학생은 입학했을 때와 복학 후 교육과정 변경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가진 점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대학이나 학과 차원에서 군 전역 후 복학생에게 바뀐 행정서비스, 수업 시스템 등 정보를 제공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제 군 전역 후 복학하여 대학생활을 경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활적응에서 어려움에 대한 요인에 대해 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념도 방법(최윤정, 김계현, 2007)을 실시했다. 기존 군 전역 복학생에 대한 주제가 사전 참조자료가 비교적 적은 상황이다. 특히, 하나의 학과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학과의 연구 참여자를 통해 군 전역 후 복학생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특수적 접근으로 개인의 독특한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내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더불어, 기존 복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복학생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업적응, 대인관계적응, 학교에 대한 애정 등을 측정한다(이은아, 2023). 하지만, 본 연구는 보다 면밀하게 복학생의 심리적 상태를 생생하게 듣고 들여다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 다르게 군 전역 후 복학의 경험을 좀 더 생생하게 학기를 최근 경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군 전역 후 경험

에 대한 기억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복학 시기에 겪은 경험을 상기시켜 이야기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의 군 입대와 전역, 같은 입학이라는 상황을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는 점으로 공감도를 통해 공통점과 개인적인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군 전역 후 복학생에게 군 상담이나 학교에서 교수면담 및 상담 장면, 프로그램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현재 복학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 어떠한 요인들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지 이해함으로써 복학을 앞둔 군 전역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한계점

끝으로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 중 대학생활 적응 척도 점수가 기준보다 높은 참여자(1인)를 포함한 점이다. 이는 점수 기준은 넘지만, 실제 대면 면담을 통해서는 여전히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기에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였다. 다른 한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며, 휴학 후 군대에 입대하는 특수한 상황을 겪을 것으로 다른 참여자와 동질감이 떨어지는 점이 있다. 또한, 각 연구 참여자마다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으며, 입대 전 대학생활적응, 군 경험 적응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입대 전 대학생활적응의 정도와 군 경험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하며, 선정 기준에서 참여자끼리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모집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G광역시의 군 전역 후 복학생 8명을 임의로 표집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은 8명 이상의 연구참여자를 토대로 개념도 연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연구 참여자가 군 전역 복학생의 모든 대상을 대표할 수 없고, 연구자의 수가 8명으로 제한적이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원을 연구하는 점이 필요하며 여러 지역과 다양한 군 형태 등 충분한 사례를 확보한 연구 대상 선정이 필요하다.

셋째, 개념도 연구방법의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Kane & Trochim, 2007). 연구 참여자의 기여도가 높더라도, 연구자의 해석과 통찰로 이루어져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명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분석 결과에서 한 군집 내 있는 진술문 중 의미가 다소 다른 문항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참여자들이 전체 토론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각자 진술문을 해석하여 구분함에 따라 나타난 제한점이다.

넷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Covid-19 시기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지낸 후, 군대에 입대하였다. 이는 일반적 군 경험과 다른 차별화된 점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시기적 특수 상황을 겪은 참여자가 아닌 일반 군 전역 후 복학생들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개념도 방법을 통해 학문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이는 면담 후 연구 참

여자의 소감으로 ‘본인이 겪었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 ‘이런 연구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다.’, ‘자신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소외된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어려움을 생생한 목소리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활용하여 여러 방면의 상담 영역에서 군 전역 후 복학생의 교육, 심리, 사회적 개입 방안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종수 (2013). 병사들의 레질리언스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 278-286.

구승신 (2013). 군인의 정신건강 문제 및 군상담의 현황 연구.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4, 1-20.

김나래, 이기학 (2016). 여성의 자발적 경력변경 (Voluntary Career Change) 영향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7(1), 227-248.

김동하, 심은송, 손영미 (2021). 군 전역 복학생의 학업/진로효능감, 심리적응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8(11), 339-367.

김동하 (2023). 군 전역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지원을 위한 긍정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김동희, 이영숙 (2017). 군 복무 후 복학한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교 생활 경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3, 973-1000.

김모란, 안윤정 (2022). 직업상담사가 인식하는 작업동맹에 대한 개념도 연구. 진로교육연구, 35(1), 143-162.

김선영 (2016). 군 복무 후 복학한 남학생의 대학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2(2), 127-156.

김선영 (2023).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문화와융합, 45(1), 135-148.

김수지 (2011).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승태, 박기홍 (2022). 병역의무 이행과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48(1), 48-58.

김옥란, 김완일 (2014). 군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5(4), 1627-1646.

김옥란, 김완일 (2015). 군 병사의 자기복잡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대인존재감과 조망수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59-181.

김옥희, 차주환 (2015). 전역자의 군복무경험의 인식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진로성숙

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 309-324.
김용기 (2012). 기본의무로서의 병역의무와 의무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정숙 (2021).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구조모형: 긍정정서확장구축이론 적용. 국내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김정연, 김성중 (2022). 군 병사를 위한 심리· 정서 관련 프로그램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 21, 13(6), 1993-2005.
김정은 (2013). 병사의 군생활 적응 위한 스트레스 대처모델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6(2), 5-38.
김종운, 김지현 (201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248-259.
김지현 (201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김진성 (2021).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한 대학생 중도 탈락 행태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31(2), 150-157.
김현미 (2017). 군복무 후 제대한 복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6), 513-523.
김효은, 김기원 (2011).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미치는 교우관계의 영향력과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패션 비즈니스, 15(4), 87-109.
나종연, 이진명, 이화옥, 조은빛 (2016). 스마트 캠퍼스 문헌고찰을 통한 프레임워크 개발 및 주요 이슈 분석.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4).
남경아, 강경화, 문성미 (2018). 군 복무 후 복학한 남자 간호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4(4), 315-325.
노해림, 김희경, 박승희, 양지연, 이우재, 전지혜, 조민경, 심은정 (2015). 군 복무 후 복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에 대한 혼합적 연구: 학업, 대인관계, 진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4), 621-642.
민경화, 최윤정 (2007). 상담일반: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 (Concept Mapping) 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1307.
박근영, 임은미 (2014). 전문상담교사의 소진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중등교육연구, 62(1), 171-198.
박다미, 임수진, 전세훈 (2013). [복학생 생활 수칙] 까딱 잘못하다간 뒷방 늙은이

된다~ 복학에도 전략이 필요해!, 매거진한경.

박미정 (2018).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미정, 함영림, 오두남 (2012).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정도 및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327-337.

박은선, 김광현 (2016). 학업중단요인 및 대학생활적응요인이 대학 신입생의 중도탈락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0), 361-384.

박진선 (2022). 군 전역 후 학업 및 진로 고민으로 인한 우울 증상 남자 대학생의 인지행동치료 사례연구. 아동가족치료연구, 20, 36-59.

서란 (2014). 대학생의 학업적 실패내성, 자기수용 및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설정훈 (2018). 군 복무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57-79.

송수진 (2016). 대학생의 학사경고 극복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성별에 따른 차이, 국내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송영숙, 김지연 (2021). 국내 군상담 연구 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865-891.

송진열 (2017).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2), 335-345.

심주원 (2016).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안지윤, 박해인, 김이경 (2019). 한국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수준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역량개발학습연구, 14(2), 51-72.

안현의, 손난희, 이문희, 서은경 (2007). 상담일반: 군복무 부적응 실태 및 인권침해 경험과의 관련성. 상담학연구, 8(2), 425-435.

알바천국 언론보도 (2013).

양웅비 (2007). 병사의 스포츠활동 참여와 군 복무 만족과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1(4), 213-227.

여형남 (2021). 남자 간호대학생의 군 복무 후 학과 적응 경험. 인문사회 21, 12(2), 393-407.

오광수, 정경은 (2020). 군생활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1-56.

오명현 (2021).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릿 (GRIT)과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요림림 (2015). 중국인유학생이 인식하는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개념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연웅 (2012). 병사들의 군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5(2), 5-30.

이경희, 강경리 (2019). 군 전역 복학생 대상 대학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 409-439.

이관형, 장용규, 안현미 (2000). 교육대학 남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만족도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6, 111-145.

이성미 (2012). 제주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이수진 (2011).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과 대학생활에서의 학업성취,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5(4), 903-926.

이숙정, 유지현 (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2(3), 589-607.

이슬 (2021).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만족의 매개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영철, 이은희 (2020). 병사의 병영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능력, 자존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7(12), 27-52.

이용헌 (2015).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성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이은아 (202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재상, 김상미 (2022).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3, 175-203.

이재완, 김민한 (2022). 병역의무 이행과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 필요성 인식: 제대군인의 희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3(3), 217-241.

이정민 (2019).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요인 규명. 예술인문사회 융

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 415-425.
이종형, 정신영, 송경재 (2012). 군대 내 언어폭력 가해 동기에 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3(4), 1767-1780.
이주원, 나동석 (2013). 군복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군대 문화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6), 29-48.
이채식 (2012). 중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결정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9(2), 121-140.
이하연, 고주은, 주민호 (2021). COVID-19 로 인한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대학생의 학교소속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가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4(1), 231-251.
이현주 (2013). 의무복무 중인 현역병의 비만도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제, 38(1).
이후신 (2022). 국방개혁 2.0에 부합되는 병역제도와 인력운영체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전정화 (2023). MZ 세대의 관계 인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정경조, 유현실 (2016). 군 병사를 위한 진로상담 체제 모형 제안. 진로교육연구, 29(3), 69-96.
정명기 (2010). 대학생의 핵심역량, 대학생활적응,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정신영, 이동귀, 박현주 (2012). 자살시도 병사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3(1), 113-133.
정용철, 홍혜영 (2014). 군 간부 및 병사의 상담에 대한 인식. 통합치료연구, 6, 75-106.
정은경, 하양숙 (2014).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군 생활 만족도가 제대 군인의 군 경험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군진간호연구, 32(1), 53-65.
정은이 (2002). 일상적 창의성과 개별성-관계성 및 심리· 사회적 적응의 관계.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은이, 박용한 (2009). 대학 적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21(2), 69-92.
정종진 (2021).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의 유용성과 절차. 초등교육연구논

총, 37(2), 19-38.
정혜영, 장성숙 (2017). 청소년이 지각한 회복탄력성 (resilience) 요인의 개념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2), 95-115.
조민호 (2020) 무사히 전역한 우린 '오래된 새내기', 고대신문.
조보람, 이정민 (2019). 대학생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4), 1-11.
조순영 (2003)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 정신건강,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2.2, 164-171.
조인영 (2014)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상관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5), 2937-2945.
주동범, 김향화 (2013).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3(1), 123-145.
주휘정, 차성현 (2011). 대학생의 휴학 결정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1), 277-293.
최윤정, 김계현 (2007). 고학력 기혼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 (Concept Mapping) 연구-진로지속 여성과 중단 여성 간의 비교. 상담학연구, 8(3), 1031-1045.
최윤정, 김지연, 이혜은 (2022). 개념도 연구방법론: 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서울. 학지사.
최은이 (2017).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조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은진, 박희현 (2012). 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중재효과. 인간발달연구, 19(3), 129-146.
최혜란, 박숙희 (2009). 군상담: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상담학연구, 10(3), 1743-1756.
통계청 (2022).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한국교육개발원 (2021). 교육통계 분석자료집-고등교육통계편.
현경림 (2019).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현명선, 정향인, 강희선 (2009). 군인들의 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8(3), 305-312.

홍수현 (2002).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의 사례 연구. 인간이해, 23, 69-96.

홍혜영, 강혜영 (2013). 남자대학생의 군 의무복무계획 수준에 따른 진로장벽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8(2), 218-239.

황혜지 (2017).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Baker, R. W.,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1*, 179-189.

Kane, M., Trochim, W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California: Sage*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4), 431-450.

Trochim, W. M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1), 1-16.

# 부록

부록 1. 대학생활적응 척도

부록 2.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문

부록 3. 진술문 공감도 평정표

# 1. 대학생활적응 척도

다음은 최근 대학 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상태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 선택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 문항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나는 현재의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 2 | 나는 대학에 들어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 1 | 2 | 3 | 4 | 5 |
| 3 | 나는 최근 들어 자주 우울해진다. | 1 | 2 | 3 | 4 | 5 |
| 4 | 나는 최근 들어 자주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 1 | 2 | 3 | 4 | 5 |
| 5 | 나는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에 만족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 6 | 나는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 1 | 2 | 3 | 4 | 5 |
| 7 | 나는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하다. | 1 | 2 | 3 | 4 | 5 |
| 8 | 나는 최근 들어 신경이 곤두서 있다. | 1 | 2 | 3 | 4 | 5 |
| 9 | 나는 지금 내가 하고있는 공부를 충분히 잘해 낼 능력이 없는 것 같다. | 1 | 2 | 3 | 4 | 5 |
| 10 |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 1 | 2 | 3 | 4 | 5 |
| 11 | 나는 현재의 주거형태에서 잘 생활해 나가고 있다 | 1 | 2 | 3 | 4 | 5 |
| 12 | 나는 최근에 머리가 자주 아프다. | 1 | 2 | 3 | 4 | 5 |
| 13 | 나는 최근에 학습의욕이 없고, 공부를 충분히 잘 해낼 능력이 없는 것 같다. | 1 | 2 | 3 | 4 | 5 |
| 14 | 나는 과모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 15 | 나는 최근에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 | 1 | 2 | 3 | 4 | 5 |
| 16 | 나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변화되었다. | 1 | 2 | 3 | 4 | 5 |
| 17 |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 1 | 2 | 3 | 4 | 5 |
| 18 | 나는 최근에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다. | 1 | 2 | 3 | 4 | 5 |
| 19 | 나는 요즘 건강상태가 좋은 것 같다. | 1 | 2 | 3 | 4 | 5 |
| 20 |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대학의 학과 공부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 1 | 2 | 3 | 4 | 5 |
| 21 | 나는 대학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22 | 나는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 1 | 2 | 3 | 4 | 5 |
| 23 | 나는 대학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 24 |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 1 | 2 | 3 | 4 | 5 |
| 25 | 나는 현재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많다. | 1 | 2 | 3 | 4 | 5 |

# 2.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문

본 모집 안내문은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적응 어려움에 대한 개념도 연구'의 석사학위 논문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김영헌이라고 합니다. 석사학위논문 과정 중 면담을 위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1. 연구제목 :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개념도 연구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군 전역 후 복학한 남자 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어려움 경험을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및 진술문 분류 작업을 통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본다.

3. 자격요건

(1) 군 복무 의무를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와 같은 현역복무를 한 남성. (병사 만기 전역)

(2) 2022년 9월~ 2023년 2월 전역 후 2023-1학기에 복학한 남성.

(3) 군 휴학 전과 후 같은 학과를 다니는 자. (편입, 전과생은 제외)

(4) 대학생활적응 척도 일정 기준 이하인 자.

4. 모집공고기간 : 2023년 8월 7일 ~ 8월 12일 (8월 13일 연락드릴 예정.)

5. 선정방법

연구참여 희망자가 신청한 폼 자료를 통해 연구참여 희망자의 나이, 전공, 학번, 입대일자, 전역일자, 군 유형, 보직, 복학시기, 대학생활적응 척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에 적합한 희망자를 판단하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연구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자의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연구 수행 중 면담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 관련 자료는 연구 마무리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연구대상자 자격요건에 미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6. 연구 참여 기간 : 2023년 8월 14일 ~ 2023년 9월 (추후 일정 진행)

7. 연구 참여자의 역할 : 연구 참여 기간 동안 2번의 만남. 약 60분 이내 면담 및 진술문 분류작업. (연구 참여 시 사례금 10만원 지급)

8. 연구신청방법 : 설문지 링크에 들어가서 안내사항을 확인 후 질문에 답변.

9. 연구책임자 :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영헌

지도교수 :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나래

문의사항은 메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3. 진술문 공감도 평정표

**다음 내용은 군 전역 후 복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 경험 요인에 대하여 1차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후 정리한 진술문 목록입니다.**

**각 진술문을 읽고 본인의 경험과 관련하여 공감되는 정도를 평점해주시길 바랍니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 번호 | 문항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복학 후 혼자 아싸로 생활하였다. | 1 | 2 | 3 | 4 | 5 |
| 2 |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끼어들 곳이 없었다. | 1 | 2 | 3 | 4 | 5 |
| 3 | 학업에 노력하였지만,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였다. | 1 | 2 | 3 | 4 | 5 |
| 4 | 학과에 아는 사람이 없어 학과 관련 정보(행사, 공모전)를 얻지 못하였다. | 1 | 2 | 3 | 4 | 5 |
| 5 | 강의에 대한 팁이나 노하우를 알려 줄 사람이 주위에 없었다. | 1 | 2 | 3 | 4 | 5 |
| 6 | 복학하고 난 후 학교 생활을 혼자한다는 느낌이 강했다. | 1 | 2 | 3 | 4 | 5 |
| 7 | 다른 사람들은 서로 잘 어울리지만,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였다. | 1 | 2 | 3 | 4 | 5 |
| 8 | 복학 후 나는 여전히 군인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성숙해 보였다. | 1 | 2 | 3 | 4 | 5 |
| 9 | 학과나 학교에서 주류인 학생에서 밀려났다. | 1 | 2 | 3 | 4 | 5 |
| 10 | 과실이나 동아리방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조용해졌다. | 1 | 2 | 3 | 4 | 5 |
| 11 | 입대 전에 배웠던 것(기초적인 학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 | 1 | 2 | 3 | 4 | 5 |
| 12 | 여학생들과 군대에 가지 않는 동기보다 학업, 취업 및 진로 등에서 뒤떨어진 느낌이다. | 1 | 2 | 3 | 4 | 5 |
| 13 | 유행이나 흐름에 뒤처진 느낌을 받았다. | 1 | 2 | 3 | 4 | 5 |
| 14 | 복학 후 학교생활은 슬프고 외로웠다. | 1 | 2 | 3 | 4 | 5 |
| 15 | 학과행사(체육대회, MT, 개강파티 등)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되고 가기 꺼려졌다. | 1 | 2 | 3 | 4 | 5 |
| 16 | 복학 후 학교 생활은 재미가 없었다. | 1 | 2 | 3 | 4 | 5 |
| 17 | 학회나 동아리에서는 고학번이라고 가입을 제한하였다. | 1 | 2 | 3 | 4 | 5 |
| 18 | 학교에 오랜만에 가니 건물이 낯설고 바뀐 강의실을 찾기가 어려웠다. | 1 | 2 | 3 | 4 | 5 |
| 19 | 수업에서 이미 친해진 무리들을 보면 부러웠다. | 1 | 2 | 3 | 4 | 5 |
| 20 | 첫 수업 때 혼자 앉아 수업을 들었다. | 1 | 2 | 3 | 4 | 5 |
| 21 | 복학 후 수업의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하니 버거웠다. | 1 | 2 | 3 | 4 | 5 |
| 22 | 학과행사(체육대회, MT, 개강파티 등)에 참여하는 애들이 부러웠다. | 1 | 2 | 3 | 4 | 5 |
| 23 | 복학 후 학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에 가곤 하였다. | 1 | 2 | 3 | 4 | 5 |
| 24 | 같은 처지의 복학생이 없어서 복학 후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없었다. | 1 | 2 | 3 | 4 | 5 |
| 25 | 사회에서 소외받는 것 같았다. | 1 | 2 | 3 | 4 | 5 |
| 26 | 여학생들과 군대에 가지 않는 동기들이 취업하거나 대학원에 가는 것을 보니 조급해졌다. | 1 | 2 | 3 | 4 | 5 |
| 27 | 전역 후 학업이나 진로에 있어 준비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 1 | 2 | 3 | 4 | 5 |
| 28 |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들과 수업을 듣기가 힘들었다. | 1 | 2 | 3 | 4 | 5 |

| | | | | | | |
|---|---|---|---|---|---|---|
| 29 | 학과행사(체육대회, MT, 개강파티 등)에 “내가 참여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1 | 2 | 3 | 4 | 5 |
| 30 | 사람들은 복학생에 대해 좋지않은 편견과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았다. | 1 | 2 | 3 | 4 | 5 |
| 31 |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취업과 진로에 걱정되었다. | 1 | 2 | 3 | 4 | 5 |
| 32 | 취업과 진로가 현실로 다가오고 조급함이 들었다. | 1 | 2 | 3 | 4 | 5 |
| 33 | 복학 후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외로웠다. | 1 | 2 | 3 | 4 | 5 |
| 34 | 조별과제에서 아는 것이 없어서 쉽게 나서지 못하였다. | 1 | 2 | 3 | 4 | 5 |
| 35 | 학과에 소속감이 없어져 멀어진 느낌이었다. | 1 | 2 | 3 | 4 | 5 |
| 36 | 조별과제에서 다른 조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벽이 느껴졌다. | 1 | 2 | 3 | 4 | 5 |
| 37 | 학과 사람들은 나를 어려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 1 | 2 | 3 | 4 | 5 |
| 38 | 전공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 | 1 | 2 | 3 | 4 | 5 |
| 39 | 학습 공백이 없던 다른 사람들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다. | 1 | 2 | 3 | 4 | 5 |
| 40 | 공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잡히지 않아 스트레스가 있었다. | 1 | 2 | 3 | 4 | 5 |
| 41 | 나의 전공에 대해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하였다. | 1 | 2 | 3 | 4 | 5 |
| 42 | 전공과 진로에 대해 현실적으로(경제적, 취업률 등) 바라보게 되었다. | 1 | 2 | 3 | 4 | 5 |
| 43 |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부담감이 들었다. | 1 | 2 | 3 | 4 | 5 |
| 44 | 다른 사람들과 이어줄 수 있는 활동(행사, 동아리, 학생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 1 | 2 | 3 | 4 | 5 |
| 45 |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하였다. | 1 | 2 | 3 | 4 | 5 |
| 46 | 혼자 수업을 듣다 보니, 모르는 것을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 1 | 2 | 3 | 4 | 5 |
| 47 |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을 먹었고, 눈치가 보였다. | 1 | 2 | 3 | 4 | 5 |
| 48 |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족보나 시험에 대한 정보를 구하지 못하였다. | 1 | 2 | 3 | 4 | 5 |
| 49 | 다른 사람들이 수업 끝나고 놀러 가는 것을 보고 부럽고 외로웠다. | 1 | 2 | 3 | 4 | 5 |
| 50 | 조별과제에서 마지막까지 조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하게 되었다. | 1 | 2 | 3 | 4 | 5 |
| 51 | 수업 전 서로 떠드는 학생들 사이에 가만히 기다리는 내가 외로웠다. | 1 | 2 | 3 | 4 | 5 |
| 52 | 처음에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다. | 1 | 2 | 3 | 4 | 5 |
| 53 | 교수님이 수업에 기초가 있는 상태로 수업하니 따라가기 힘들었다. | 1 | 2 | 3 | 4 | 5 |
| 54 | 다른 사람들이 “복학생은 아저씨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았다. | 1 | 2 | 3 | 4 | 5 |
| 55 | 최대한 빨리 취업을 해야할 것 같은 부담이 들었다. | 1 | 2 | 3 | 4 | 5 |
| 56 | 전역 후 "나도 연애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실은 아니었다. | 1 | 2 | 3 | 4 | 5 |
| 57 | 복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낯선 환경이었다. | 1 | 2 | 3 | 4 | 5 |
| 58 | 과실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가기가 꺼려졌었다. | 1 | 2 | 3 | 4 | 5 |
| 59 | 복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문화 차이가 나는 것 같았다. | 1 | 2 | 3 | 4 | 5 |
| 60 | 다른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섣불리 다가가기 어려웠다. | 1 | 2 | 3 | 4 | 5 |
| 61 | 군대 공백기로 인해 남들과 뒤처진 출발을 하여 부담감과 조급함이 들었다. | 1 | 2 | 3 | 4 | 5 |
| 62 | 학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인사해주면 어떻게 받아줘야할지 고민이었다. | 1 | 2 | 3 | 4 | 5 |
| 63 | 공강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심심하였다. | 1 | 2 | 3 | 4 | 5 |
| 64 | 다른 학생들이 “내가 복학생이라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였다. | 1 | 2 | 3 | 4 | 5 |
| 65 | 진로와 취업에 전공을 살릴지, 다른 것을 해볼지 고민하였다. | 1 | 2 | 3 | 4 | 5 |
| 66 | 사회로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 1 | 2 | 3 | 4 | 5 |
| 67 | 군 복무 이전과 수업 분위기가 달라 적응이 힘들었다. | 1 | 2 | 3 | 4 | 5 |
| 68 |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변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다. | 1 | 2 | 3 | 4 | 5 |
| 69 | 대학이나 학과의 행정서비스가 복학생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 1 | 2 | 3 | 4 | 5 |
| 70 | 남자 복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 1 | 2 | 3 | 4 | 5 |
| 71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알바를 시작하였다. | 1 | 2 | 3 | 4 | 5 |
| 72 | 가족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았다. | 1 | 2 | 3 | 4 | 5 |